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보

2011 신년호 Vol.40

공지사항

2010년도 의사회비 납부요청 및 신용카드결제 안내
제2회 경상북도의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집」 안내
제9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국내최초

CCB+ARB 복합제

Initial Therapy

적응증 획득!

‘一石三鳥’

• 약효↑ • 부작용↓ • 약가↓

찰떡궁합
[CCB대표 + ARB원조]
Amlodipine + Losartan

아모잘탄



권 세 홍(안동병원 영상의학과)

저기 새떼들,
달력장 넘기듯 눈발 건너가네
시간은 저리 보내지 못하나
영영 썰물져 보내지는 말고
펄럭이는 깃발 목 신 뱃고동으로
滿潮의 가슴 우렁우렁
날카롭고 견고한 보습으로 돌아와
납고 해묵은 생각과 지식
깊이 갈아엎어 객토할 수 없나

마음은 굴뚝이나
고드름처럼 눈물만 흘려대는
저 모시풀같이 약한 이들의 처마에
볶은 보리쌀 같은 햇살 한 줌 뿌려주는 손,
양손에 연탄 한 장씩 껴들고
응달져 언 비탈길 오르내릴 때
그 비탈에 무언가 숨겨두었다가
불쑥 내미는 주글주글한 손,
삶이 그런 할머니 손 같았으면

고통과 불면의 창에
황금빛 콧김 서리는 아침,
얼어붙은 돌들이 나팔꽃처럼
입을 열어 부르는 노래
금 간 얼굴에 묻어나는 미소,
저 침묵의 언어 가슴에 묻고
다시금 한 해의 꼭두
또박또박 어머니 박음질하듯
희범한 길을 나서라





8



12



표지설명
장태영(동산제통의원, 구미)
지리산 천왕봉 신묘년 첫 일출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1년 1월 12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종영·문기혁·김종규·장태영
 [702-81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TEL.(053) 941-7785 FAX.(053) 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 555-3336 FAX.(053) 556-3273

- 3 **신년시**
새해에 읊조리다 · 권세홍
- 5 **신년사**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 이석균
통통통 하는 신묘년 되시기를! · 정만진
기회를 희망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 경만호
- 8 **포토뉴스**
- 12 **회무소식**
'의협회장-경북회원과 의 대화'
201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성료
- 18 **회무단신 · 회원동정**
- 22 **공지사항**
2010년도 의사회비 납부요청 및 신용카드결제 안내
제2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집」 안내
제9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안내
- 31 **분회 및 병원소식**
- 40 **지역의사회 탐방**
영천시의회사회 / 칠곡군의회사회
- 46 **회원문예 및 작품**
수필_매듭 · 이종규
사진_신묘년 새해 일출 · 오춘석
mania를 찾아서_골드베르크 변주곡 · 광규호
- 52 **의료봉사기**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하였습니다 · 정만진
- 59 **의학 및 건강칼럼**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 · 안길영
- 61 **개원이전현황 / KTX시간표**

분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2010. 4. 7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0. 9. 26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2010. 4.	제37호 경북의사회보 보호 발간	2010. 10. 16~17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0. 4. 25	제6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0. 10. 28	제39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0. 5. 1~2	임원 및 시군의회회장 워크숍	2010. 11. 7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0. 5.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010.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0. 5. 15~16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1. 1. 6	시군의회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0. 5. 16	전국 의사등반대회	2011. 1. 12	제40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0. 5.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2011. 3. 5	2010년도 전체이사회
2010. 6. 5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2011. 3.	2010년도 회무감사
2010. 6. 18	의사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교육	2011. 3. 26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2010. 7. 15	제38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토끼처럼 온순하고 상냥하고 지적인 태도로 존경을 받고 신임 또한 두터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한 해 본회 회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우리 의료계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일차의료 활성화, 간선제 파문, 총액계약제 등 굵직한 현안 문제들로 회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급속한 의료환경 속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함은 물론 단결된 지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중에서도 가장 모범을 보이며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정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회원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불우시설 방문, 국내 취약지역 무료진료봉사와 재난·재해시를 대비한 의료봉사단 창단, 경북 큰 만남행사 무료진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참여, 간판문화 선진화 민관 공동협약, 경북지방경찰청과의 교류협약,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대경권 '100인 선언' 등 지역사회와의 '한 호흡'

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11년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에 소통의 물꼬를 트고 회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회원간, 지역간, 정치권간 소통들이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들 3축의 균형점 위에서 경상북도의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정치인 후원활동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인년 한 해 회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회원님들께 웃음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경북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행기겠으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아침에
경상북도의회장 **이 석 균**



통통통 하는 신묘년 되시기를!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어느 신문에 소개된 건배사들을 보니 참으로 다양하고, 탄성과 웃음이 절로 피어나는 정금일침의 교훈이 서려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 몇 개를 소개하면, 우리 의료계에 큰 회오리를 일으켰던 오바마(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를 비롯하여, 직원회식 때 쓸 수 있는 개나리(계급장 떼고 나이는 잊고 리렉스하게), 술자리 분위기를 띄울 때 쓸 수 있는 지화자(지금부터 화끈한 자리를 위하여), 골프 모임에 어울리는 올파(올해도 파이팅 합시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나가자(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친구들끼리 우정을 다지면서 오징어(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송별모임에 딱 어울리는 고감사(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나가기 직전에 쓰는 마돈나(마시고 돈내고 나가자)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건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저의 건강강의 제목이기도 한 “활동하며, 100세까지”라는 건배사를 즐겨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통통통”이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통통통”은 “운수대통, 만사형통, 의사소통”을 줄인 말입니다. “운수대통”은 시대의 흐름이자 운명 같은 것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형통”과 “의사소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의사(意思)가 소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의사가 소통되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나 정치계는 물론 우리 의사회에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요즘의 우리 의료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약분업의 여러 문제는 물론 저수가 의료보험, 리베이트 쌍벌죄, 일차의료활성화 문제, 건강관리 서비스 문제, 원격진료 문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화급한 문제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0만 의사가 일치단결해도 어려운데 의협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의료계를 향한 외부의 압박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현대사회에서 10만 의사회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왜 우리 의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탄이 절로 납니다. 의협회의는 피켓과 구호로 얼룩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홈페이지의 플라자에는 생각이 다른 서로를 향하여 비방과 욕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회원끼리 화합과 소통은 커녕 서로 미워하고 막가파식 언어의 총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은 한 두 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의사소통하고 일치단결하는 지성인의 미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토끼띠 새해에도 “통통통” 하소서!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 정 만 진



기회를 희망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1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아침은 늘 희망차게 마련입니다만, 올해는 어쩐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료계의 현실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듯해서입니다. 또, 그런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특히 올해엔 크나큰 도전이 우리 앞에 닥쳐올 전망입니다.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애드벌룬 띄우기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미구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입자단체 등에서 총액계약제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보험 재정 때문입니다. 수가 총량을 억제하지 않고는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성분명 처방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옥죄어 국민에게 값 싼 약만을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을 통제하고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은 불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저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에게 족쇄를 채우고 의사의 고유영역이자 권한을 침해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 도전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은 늘 기회와 함께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희망으로 만드느냐, 놓쳐버리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새 아침은 밝았고, 희망이 붉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작년 말, 그야말로 희망을 갖게 해줄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져왔습니다. 정하균 의원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는 게 그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적 미비에서 비롯되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그간 아예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

보다도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 의원의 입법발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입법발의가 곧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론의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작년에 의·정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1차의료 활성화 방안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원가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종별 의료기관이 저마다 그 특성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료계의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올해엔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백방으로 땀 흘릴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원격의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그리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저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협이 노력으로 이들 법안이 지금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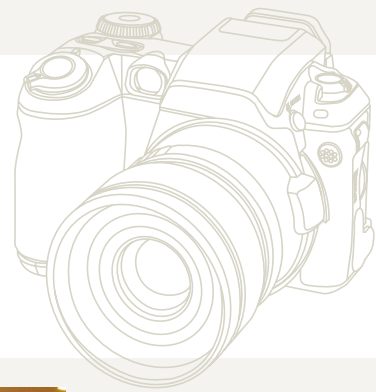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해 말 전국을 돌며 회원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마음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구구절절한 소리를 들음으로써 새삼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회원들과의 대화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기탄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더욱 큰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경만호**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와 시군의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위문공연과 더불어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포항시의사회
2010. 12. 28 포항모자원





안동시의사회

2010. 12. 15 애명복지촌



경주시의사회

2010. 12. 14 예티센터
2010. 12. 16 대 자 원



구미시의사회

2010. 12. 22 지역아동센터



상주시의사회

2010. 12. 9 상주보림원



경산시의사회

2010. 12. 8 경산시청



‘의협회장-경북회원과의 대화’

- 예정된 시간 넘기며 뜨거운 공방과 대화 주고 받아 -



2010년 12월 20일 저녁 8시 15분, 대구 호텔제이스에서 경북회원 및 관계자 37명과 타지역회원 5명, 의협 회장 및 관계자 5명, 기자 4명이 참석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 이석균 본회 회장,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 정능수 부의장 소개 후,

이석균 회장 인사 | 회원님들의 참석에 감사드리며, 먼저 대구시 회원과의 대화에서 경북회원의 발언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게 된 점을 정식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지역 회원께서는 발언을 제한하겠으나 참석하도록 하겠다. 언성을 높이더라도 질서는 지키도록 하자. 좋은 대화 바란다.

경만호 회장 인사 |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멀리서 오신 분들

께 감사드리며, 전의총과의 대화도 부족했던 것 같다. 1차 의료살리기에 일 년을 보내왔으며, 복지부 국장을 만나 1차의료 살리기 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에 노력하겠다.

한형원 기획이사 | 토론의 사회는 본회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이 맡기로 한다.

정만진 의장(이하 사회) | 질문은 신랄하게, 표정은 밝게 경만호 회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자. 질문 2분, 추가질문 1분, 가능하면 한 분이 하시고 요점을 분명히, 비방이나 지속한 것은 곤란하다.

답변은 10분이내로 가능하면 회장이 답하시고, 송우철 이사는 보조답변자로 진행한다.

의료수가 인상 가능성, 의약분업 선택분업으로의 전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임의비급여 폐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을 늘리는 방안, 의대정원 감축 및 의사수 감축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경만호 회장은 질의에 하나씩 답변을 했다.

석노성 회원(전의총 경북부지부장) | 원격의료, 건강서비스, 경 회장 공금횡령부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많은 질문을 해도 되겠나?



사 회 | 소통에 노력하겠다.

경만호 회장(이하 회장) | 판단은 회원이 한다

이종규 울진회장 | 우리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우리가 내부분열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자초지종을 확실히 알고 싶고, 오늘의 토론을 정확히 회원들께 보고 하겠다.

사 회 | 오늘을 계기로 회원 모두 단합하자.



임승혁 회원(안동) | 삼십대 개원준비중인 의사이다. 개원대출 한도 저하로 개원이 힘들다. 걱정과 분노가 심하다. 회장님께서 경험이 없는 이사에게 보험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의료 전담 의사제에 대한 논의변화(주:주치의제도에서부터 전담의사제로까지의 변화과정)가 된 이유는? 저수가협상, 선택분업전환에 대한 생각, 강제 의약분업제를 파기하여 파이를 높일 수 있는지 답해달라, 임의 비급여제,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있게 해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회 장 | 절실한 문제다. '하나라도 자신있나?'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는 답 못하지만, 이 모두가 그동안 축적돼 왔던 문제로 빠져리게 느끼고 있다. 수가인상과 파이 확대는 국고 보조 확대든지 건강보험료 인상이든지 담배값 인상 등인데 사회적 저항이 심하다. 이 때문에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 매년 힘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강제지정제 문제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내에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현 의료체계하에서 강제지정을 푼다고 해서, 지정을 풀 회원은 거의 없다고 본다. 임의비급여는 법률로 바뀔 예정이다. 주치의제도와 혼동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것이며, 현재 전담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뿐 실체는 없다. 의대정원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의사가 적으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문제다.



복지부내에 일차의료 활성화팀 7명이 구성되었다 틀림 없이 활성화를 위한 안이 나올 것이다. 전담의제는 복지부가 파악한 만성질환 480만명을 일차의료를 통해 관리하려고 한다. 이 '480만명을 누가 볼 것인가?' 하는 것과 환자 진료건당 3000원을 보상해주는 문제등, 의협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면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어서 할 것이다. 의협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자격증을 발행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다. 내년 1월 중순 전의총을 비롯해 의료계,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할 것이며, 이때 많은 얘기들을 했으면 한다.

임승혁 회원(추가질문) | 이는 답이 아니다. 제도권 내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복지부는 돈을 줄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 복지부와 협상을 할 때 회장님께서서는 회원의 뜻을 물어 회원 전체의 의견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하지 않겠나?

회 장 | 복지부도 동반자 관계다. 모든 질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수가는 자금이고 파이를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차의료로 파이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석노성 회원(구미) | 회장발언에 실망이다. 전담의제는 젊은 의사들 죽으라는 이야기이다. 일차 의료 활성화는 경회장의 업적 아니다, 정부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닌가? 전담의제는 전체회원들의 인터넷투표로 결정해 달라.

회 장 | 전담의제는 아직 실체는 없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다.

법정단체가 아닌 전의총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플라자의견이 의사 전체의견이 아니다. 의료계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 앞으로 복지부회의 때 전의총 회원을 참석시키겠다. 그리고 플라자에서 나오는 주장들도 참고하겠다. 오늘 이런 자리는 전의총 회원들하고만 대화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업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무검증제를 막은 것과 약사 중심의 DUR을 의사 중심으로 만들고, 의료인 폭행가중 처벌법 제정 등 의협이 노력한 제도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의사들의 개선된 환경 마련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모두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낸 것인데,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석노성 회원(추가 질문) | 전담의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주치의제는 일본에서도 실패했다. 의협내 모이사와 회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모이사는 “지금 회장말고 대안이 있느냐?”는 답을 하였다. 이에 대한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의협내 비상대책위 만들자. 질문 요지는 전체 의사회원 대상 인터넷투표가 어떤지? 회장께서 이러한 의견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말해달라.

사 회 | 실명지칭 발언은 삼가달라.

회 장 | 의협이사의 말은 '지금 회장만큼 잘해온 사람이 있는가'란 말로 들린다. 지속적 강력 투쟁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투표문제는 현재 800명이 의협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에게는 상임이사보고용

자료를 보내고 있으며 의견도 받고 있지만 회신이 잘되고 있질 않다. 의견수렴을 확실히 하겠다.

석노성 회원(추가질문) | 골고루 전체의사를 대상으로 합시다.

회 장 | 고려하겠다.

최 석 회원(포항) | 회장되기 전 동북아 포럼글 많이 읽었다. 직접 썼는가?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을 찬성하나? 의사들을 위해 어떤 희생과 봉사를 했는지 말해 달라. 지금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발전적 사항이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안건이 통과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회 장 | 동북아 포럼글은 제가 썼고 개인적으로 직선제를 찬성하며, 매일매일 회원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생을 하면서도 결과가 없으니 괜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 석 회원(추가질문) | 동북아 포럼 글과 같은 길을 왜 안가고 있는지? 간선제 소송에 의협 돈을 쓴 이유는?

회 장 | 간선제문제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집행부는 정관에 따라야 한다.



정만진 의장(사회) | 여러 시도 의사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간선제 안건을 올렸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결과 총회에 상정해 통과된 것, 의협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안건과 관련된 입장이나, 실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박 현 회원(고령군 공보의) | 의협은 의사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리베이트 쌍벌제, 수가 인상률 등에 대처를 잘하는지 의문이다. 의료수가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지역 의사회등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다음에는 수가 관련해서 인터넷 투표결과로 수가 결정에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회 장 | 면목없다. 수가에 실망하여 파업하면 어렵다. 수가 협상의 결정과정에서 협상종료 15분전에 공단에서 제시하였다. 올해 수가 인상율이 낮게 협상된 것은 공단에서 부대 조건으로 회계투명성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각 단체 대표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시군구 의사회에서 전달 안되는 문제는 의협내에 공보의, 전공 의대표가 이사로 되어 있어서 이들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

사 회 | 일반회원들의 의견수렴에 관심을 가져달라.



김용채 회원(김천시 공보의) | 의사제도에 대해서 말하면 친척들은 배부른 소리라 한다. 안타깝다. 제도권의 틀을 깰 수 없다고 했는데 약사회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으로 우리의 파이를 많이 뺏어갔다. 회비횡령에 대한 감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는 순간 회장께서는 책임지고 회장직을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

사 회 | 공보의 선생님들께 미안하다. 경북의사회도 관심을 가지겠다.

회 장 | 약사단체도 쌍벌제등으로 힘들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포장약 30일치 대한 조제료나 관리료도 달라질 것 같다. FTA 되면 약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떨어지는 약가는 의료계의 파이로 돌아올 것이다.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2000년과 같은 투쟁을 해야한다. 생동성 인정 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앞으로 약효 동등성 약으로 단어 선택 통일하자. 1억 횡령건은 터무니없다, 경기도의사회 토론회 불참 문제는 KBS의 보도가 전제된 토론회에 대한 참여가 의사회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건지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김재왕 부회장(안동) |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 회장에 대한 격려와 비판등으로 의료계가 분열되고 회장의 업무 수행도 힘들다. 회원들에게 다시 신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FTA로 약가가 다운되면 의료계의 파이로 온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고 안된게 너무 많다. 담보할 수 있나?

회 장 | 재신임문제는 많이 생각을 했다. 신임문제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말 의료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약가문제는 복지부 장관과 만남에 3자도 동석케 해 확실한 약속을 다시 받겠다. 만성질환 관리는 의협이 인정한 의사가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필요한 회의에 전의총을 참여토록 하겠다.

박숙현 회원(경주시 공보의) | 약사는 원가의 126% 받는데, 의사는 원가의 74%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말해달라. 의협회장은 도덕성이 중요하다.

오바마 발언에 대한 해명은 의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 하는가?

회 장 |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원가 비율 문제는 국가통제하의 공급과 수급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광만 부회장(포항) | 마노요양원은 부인께서 경영하시는 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회 장 | 얼마나 깊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법인설립은 회장선출 전의 일이고, 베드당 정해진 지원예산이다. 의료 법인을 만들려면 출연해야하고 2년 안에 땅파기 시작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연재산을 몰수당한다. 정부 지원금은 베드당 지원액수이다. 그래서 시기가 임기와 맞물려서 오해한 것이다. 집사람 고생만 한다.

※ 위 내용은 2010년 12월 22일 경상북도의사회와 의협회장과의 만남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급적 대화내용을 원본대로 지키도록 노력했으나 편집상 질의 내용전부를 실지 못한 점 해당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리 : 공보이사)

201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성료



학술 발표 연제

- 2010 마약류 취급자 교육
- 이정기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사무관
- 류마티스 관절염의 최신경향
- 강영모 경북의전원 내과 교수
- 노년남성의 비뇨기계 질환
- 김덕윤 대구가톨릭의대 비뇨기과 교수
- 인수공통감염병의 이해
-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외래에서 흔히보는 손의 질환과 외상
- 우상현 더블유병원 수부외과 병원장
- 여성 노화와 갱년기 대책
- 윤성도 계명대의대 산부인과 교수
- 다양한 보톡스 주사법의 이용 및 안면주름제거술
- 안기영 성형외과의원 원장

본회는 지난 11월 7일(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날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최신 의학지견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1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는 이동석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를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최신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했다.

이날 본회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학술대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회원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했으며, 이어 의협의 2011년도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경과 설명과 최근 의료현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강의로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이정기 사무관으로부터 2010년도 마약류 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경북의전원 강영모 교수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최신경향' 등 6편의 학술연제로 구성되어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이 주어지는 등 경상북도의 사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는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학술대회장에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동영상과 '결혼은 행복약속, 출산은 미래약속', '다산다복, 아이가 미래입니다' 라는 구호로 참석한 회원에게 리플릿을 전달하며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했다.



이정기 사무관

강영모 교수

김덕윤 교수

임현술 교수

우상현 병원장

윤성도 교수

안기영 원장

시군의사회장 및 본회 임원 연석회의



지난 1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호텔 제이스 파티룸에서 2011년도 시군의사회장 및 본

회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본회 고문을 비롯한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신년인사와 이석균 회장,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의 신년사, 건배제의, 회무보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요회무보고에서는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불우시설 방문과 의협 회원전용 콜센터 개설, 시군의사회 신임회장 선출, 제2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201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결정, 2010년 귀속 의료비 자료제출, 의사회비 신년호 발간, 본회 홈페이지 활용 및 가입현황, 갤럭시S 판매제휴 보고 등에 대해 각 부서별 소관이사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으로는 2010년도 의사회비 납부 독려와 관련하여 시군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2011년도 본회 주요 행사 개최 일정 확정, 다문화 가족 의료지원활동 전개, 스마트폰용 어플 제작관련 정보제공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대구지원과 본회 간담회 개최



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본회는 지난 11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영천, 영양 숯불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사관련 업무 논의 및 DUR서비스 시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심사평가원대구지원의 주관으로 양 단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김성규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의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간담회가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였으며, 본회 이석균 회장은 '쌀쌀한 날씨속에 초대해 주신 심평원대구지원에 감사드리며, 심평원과 의사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하였다.

이어 심평원대구지원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심사현황과 KCD-6차 개정 주요내용, 동일성분 중복 처방 관리, 처방·조제 상이건 사후관리,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 관련, 201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기획현지조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DUR 서비스 시행에 앞서 개최되는 사전 교육 참가 홍보 및 시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간담회를 마쳤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성공추진을 위한 국가지원 건의문 채택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일치를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

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도의 협력을 다짐하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협약식이 11월 8일(월) 오후 2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와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도청이전 신도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 신청사 건립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양도의회 의장,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경북도내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특강과 대정부 건의문 채택, 성공기원 떡 절단식과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대경권 '100인 선언'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1월 1일(월) 오후 5시 대구 엑스코에서 의료계와, 상공계, 학계 등 각 직능별 지도층이 참석한 '100인 선언'에 본회 이석균 회장이 참석하여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기원하고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참석한 100인 리더들은 선언문을 통해 “하늘 길을 열지 않고는 글로벌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전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대구·경북 등 영남권이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남부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밀양에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신공항 건설은 1천320만 영남권 주민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결하고 반복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란 점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간판문화 선진화 민관 공동 협력·협약 체결



경상북도에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간판문화 선진화운동' 추진 계획에 따라 무질서한 거리를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로 조기 정착 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식이 지난 10월 29일(금) 오전 11시

경북도청 3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력·협약식에는 경상북도와 본회를 비롯한 9개 기관·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판문화 선진화도 품격제고의 시작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시작으로 간판문화 경과 및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회에서는 박일영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2010 경북 큰 만남 행사' 무료 진료

경상북도에서는 안전 및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를 총 망라한 범도민적인 안전문화 홍보 및 자원봉사 경연의 장인 '2010 경북 큰 만남-자원봉사 & 안전문화' 행사가 지난 11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2일간 구미 박정희 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본회에서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결과 |

-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11/5) : 105명 진료, 의사 송인웅, 간호사 4명, - 구미차병원(11/6) : 164명 진료, 의사 권택주, 간호사 4명

본회,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간담회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상견례 및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1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남산식당에서 개최됐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김춘운 대구지역본부장은 ‘현안논의를 위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양단체에서 협조하자’고 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마련한 자료를 통해 201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분석, 2011년 보장성 확대 계획(안),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회 이석균 회장, 공중보건기사 직무교육 특강



경상북도 의과·치과·한 의과 전체 공중보건기사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공

중보건기사 직무교육이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첫째날 직무교육 일정으로는 의료법과 농특법에 대해 대한공중보건기사협회 고문 변호사가, 영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해 심평원대구지원 변진희 차장의 강의가 있었으며, 이어 본회 이석균 회장은 의사윤리 및 의료현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석균 회장은 특강에서 본회의 주요현황 및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으로 종별 영양기관 영양급여비용 추이 비교, 2011년도 수가협상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공중보건기사 각 분과별 강의와 토의로 이루어졌다. 둘째날에는 의료경영 및 자산운용에 대한 강의와 전체토의 및 사업보고 등의 일정으로 11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1박 2일간 개최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원 간담회 개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일) 오후 6시 대구 행복한날식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

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다', 또한 '생명의 탄생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당연히 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내적으로 본회 행사(의사의 날, 학술대회 등)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리플릿 등 안내문 홍보와 더불어 의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게재하는 등 시도민과 회원들에게 저출산 극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경북도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저출산 관련 진료과의 건강상담 및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진행키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두 동참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2010년 건강걷기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지역본부는 걷기의 생활화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여 공단의 'Green Health, Green Life' 실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2010년 건강걷기대회가 지난 11월 6일(토) 오전 10시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대구광역시와 TBC대구방송, 대한노인회 등의 후원으로 보건의로 단체장과 지역민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두류공원 일원 3.2km 걷기와 건강부스 운영으로 건강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균 대구광역시 정무부지사와 조원진 국회의원, 본회 이정기 의무이사, 대구시의사회 김명성 부회장 등 보건의료관계 단체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이석균 본회 회장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위촉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회 이석균 회장이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4년간 활동한다.

김대환 회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 위촉



김대환 회원(영천, 베드로내과의원)이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14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포항세명기독병원 류인혁 부원장 세계수부학회 발간 '핸드 서저리' 단독저자 참여



세명기독병원 류인혁 부원장(정형외과)이 2010년 세계수부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저서 핸드서저리(Hand Surgery) 단독저자로 참여해 화제다.

류인혁 부원장은 이 책의 주관절 불안정성 질환 부분 '팔꿈치 불안정성 환자

들의 유형, 수술적 치료법과 재활 및 예후'에 대한 내용으로 7페이지에 걸쳐 단독저자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류 부원장은 지난 4월 유럽수부외과에서 발표한 엄지 손가락 인대에 무리한 힘을 줘 생긴 협착성 건막염인 드퀘르뱅씨병(de Quervain's Disease)(듀교방씨병)의 수술적 치료 논문이 세계수부외과학회 저널 유럽판 2010년 10월판에 게재됐다.

류 부원장이 이끄는 세명기독병원 정형·성형센터는 그 동안 의료진에게 해외연수 기회와 함께 연 1회 이상 해외학회 참

여, 연 3회 이상 국내·외 연수를 통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4년 이후 연 10편 이상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팀 대한비뇨기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2년 연속 수상



비뇨기과 차우현, 김기호, 서영진, 이경섭 교수팀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서 열린 대한비뇨기과학회 제62차 학술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논문상(국내 임상 부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학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발표한 논문은 "남성 상부운동신경원 손상 환자에서 척수손상의 위치와 청결간헐적도뇨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다.

이번 연구는 척수 손상 환자에서 카테타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 보다는 착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더욱 활발한 성생활을 함을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청결간헐적도뇨 등과 같이 가능한 요도 카테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동국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서영진 교수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비뇨기과 서영진 교수는 최근 세계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 2011년 판에 등재됐다.

서영진 교수는 현재 대한비뇨기과학회 정보위원,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요로

결석 및 배뇨장애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비뇨기과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2010년도

의사회비 납부요청 및 신용카드결제 안내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중추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다시한번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의 회비납부를 통하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로도 납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도내거주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정관세칙 제5조)

-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정관세칙 제5조)

(1) 회비 면제회원

- 만 70세이상 회원(1940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의협 및 특별회비·분담금 (단, 경북도의사회비는 '가회원' 250,000원, '나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 전업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2)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 회원)중 '나' 회원회비 적용대상 : 492,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0년 5월 1일~1945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회원 변동 신고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접속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변경내용 수정

신용카드 결제

-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화면 좌측 박스) 클릭 → 해당금액 결제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휴직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42,000	242,000	137,000	10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계	580,000	492,000	367,000	212,000	105,000	

제2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경상북도의사회는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상개요

- (1) 상 명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각 1명)
- (2) 시상내용 : 본상 상패 및 부상(각 금 1냥)
- (3) 후 원 : (주)동원약품
- (4) 시상시기 : 2011년 3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상 일정 추후 안내)

응모자격

- (1) 학 술 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과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
 - 1저자 혹은 교신저자
- (2) 봉 사 상(회원 및 단체)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또는 의사단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 시군의사회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1) 학 술 상
 - 1)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2) 논문목록표 1부(논문은 우선 순위로 기재)
 - 3) 논문개요 및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에 대한 요약 1부

4) 논문의 별책 각 1권

(2) 봉 사 상(회원 및 단체)

- 1)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2) 봉사개요 및 활동내역 1부
(각종사진 및 신문기사 등 활동사항)

제출사항

- (1) 제출마감 : 2011년 2월 11일(금)
- (2)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사회
-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 마감은 2월 11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사항

- (1)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심사는 경상북도 의사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3) 제출서류(신청서 등)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www.igbma.or.kr\)](http://www.igbm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자세한 문의를 본회(☎ 053-941-7785)나 이동석 학술이사 (동국대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 054-770-8255)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1. 1.

경 상 북 도 의 사 회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집」 안내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급여수준 및 단계적 상향 일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2010. 12. 1.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에 동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집」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주요 내용

1. 퇴직금제도 적용 시행확대

- 2010. 12. 1. 부터 근로자수 4인 이하 모든 사업장 적용확대

2. 적용근로자

- 2010. 12. 1. 이후 기간부터 재직할 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 (2010. 11. 30.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지업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퇴직급여의 종류

- ① 퇴직금제도와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④ 개인퇴직계좌(IRA) 중 선택가능

4. 법정퇴직금 최저 기준

- 2010. 12. 1 ~ 2012. 12. 31. 1년에 평균임금의 15일분
- 2013. 1. 1. 이후부터는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

5. 과제와 유의할 점

-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 조정
 - 임금지급액 인상율을 반영한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를 조정
-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선택
 - 부담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
- 근로계약서 작성
 - 평균임금,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제도의 종류 등을 명시
-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유의사항
 - 절차(서면 요청과 승낙) 및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 명시

퇴직급여제도 적용확대 주요 내용

1. 퇴직금제도 추진과정

- 1953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강제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그 동안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정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예정 명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내용

- 상시 4인 이하 전체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시행시기를 2010년 12월 1일로 정함. (업종에 따른 예외 없음)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 1. 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퇴직급여제도 설명

1. 적용대상 및 제외 근로자

(1) 적용근로자

-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이나 징계하고, 범죄행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정퇴직금은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총담금이나 적립금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됨

(2) 제외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제도)이 적용되지 않음.

-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음.

2. 퇴직급여의 종류와 선택

(1)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급여의 종류에는 ①퇴직금제도와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또한 상시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대신 ④개인퇴직계좌(IRA)를 선택할 수 있음.

(2) 선택 또는 변경

- 선택이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이란 이렇게 선택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최초에는 퇴직금제도를 선택하여 운용하다가 도중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음. 즉 여기에서의 선택이나 변경은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나 변경을 말함.

3.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최초시행

-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는 법이 적용되는 시행시기(2010. 12. 1.)를 시작시점(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의 근로여부를 판단. 즉, 2011. 11. 30까지 근무할 경우에만 퇴직금발생.
- 2010. 12.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한 종사자가 2013. 12. 1. 퇴직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급여수준 특례 기간에 대해 각각의 급여수준을 적용. 즉, 2010. 12. 1부터 2012. 12. 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 1. 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2) 법정퇴직금 최저 기준

-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따라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최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를 시행해야 함.

(3) 퇴직금의 산정방법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

- 계속근로연수 : 여기에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함.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유학, 사상병)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 또한 계속근로연수는 만 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예를 들어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



$$\text{퇴직금} = \text{1일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text{재직기간 총 근로일수}/365\text{일})$$

계속근로연수에서 계속근로란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곱하여 산출. 평균임금은 퇴직일(사표수리일, 해고일)을 제외하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평균임금

- ① 평균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지급된'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포함. 평균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포함되고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포함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그 금액이 모두 포함됨. 즉 공제전 금액이 임금총액이 됨.

- ② 3개월간의 총일수 : 3개월간의 총일수는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을 제외하고 전일부터 달력상 역으로 3개월을 계산. 3개월 동안은 9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월상 3개월 동안에 포함된 날짜를 말하므로 89일~92일이 됨. (예를 들어 2009년 5월 15일에 퇴직한 경우 총일수는 2009년 2월 15일~2009년 5월 14일로 89일이 된다. 만약 취업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다만 상여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

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을 산입해야 하므로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게 된다.)

(4)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5)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계속근로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를 계산할 것이나 여부는 근로자의 퇴직이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제 또는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 퇴직금의 중간정산 예

- ① 병원 측의 강요나 사정에 의한 중간정산 : 퇴직금 부담을 줄이거나 누진제 부담 때문에 병원의 강요나 경영방침 등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처리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해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즉,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병원의 강요, 방침 등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조치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사표제출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 근로기간을 통산해야 함.
- ②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정산 : 병원의 강요나 경영방침 등과 전혀 관계없이 근로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주택구입 또는 부채청산 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순전히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병원의 승낙으로 퇴직금을 지불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게 됨.

(6) 퇴직금 사전포기와 부채소환의 효력

-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채소환 특약을 하는 것은 무효.

4.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함.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제도 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주의 기여금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운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임. 최종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기여금을 정기적(매년 1회 이상)으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제도의 후원자(Sponsor)인 사용자에게 있음.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은퇴 후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매월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정하고 사업주가 기여금을 매월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이동시 통산이 편리한 반면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벌칙의 적용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와 유의사항

1.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 조정

-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전체 임금지급액의 1/12 수준(30일분/년 365일)에 해당되므로(201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24 수준), 임금상승효과가 발생. 따라서 2010. 12월부터 동 인상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주40시간제도가 시행 예정되어 있는 2012년부터는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감안한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함.

2.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선택

- 퇴직금의 일시적 지급이라는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각 병원의 적합한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 필요함. (참고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적용함) 퇴직연금제도는 종류에 따라, 운용회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3. 근로계약서 작성

- 퇴직금의 지급제한 사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체계의 명확화, 퇴직금중간정산의 가능성, 퇴직금제도의 종류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개별급여 수준이 다르고 매년 조정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하되, 특히 계약직의 경우 필수적임.

4.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유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에 필요한 절차(서면 요청과 승낙)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정산기간, 정산금액, 고지하는 사항 등 명시)을 유의.



제9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개시 2010. 11. 1 ~ (수시가입 가능)

가입효력

- 은행계좌로 해당 공제료가 입금된 익일 0시부터 1년간 (단,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제료 입금내역이 일치해야 함)
- 가입대상 :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소속 개원의 및 봉직의 (개인가입)

가입절차

실제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진료계열(Code), 보상한도액, 면책금 선택 (특별약관이 필요한 경우 담보내용 확인 후 가입여부 선택)



가입신청서 기재 및 서명(납부할 공제료를 안내 받음)



가입신청서 송부(FAX 또는 우편)



지정된 은행계좌에 공제료 입금(가입회원명 및 면허번호 기재)

납입방법

- 일시납이 원칙이며, 총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분납(2%할증), 총 공제료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분납(3%할증) 선택가능.
- 분납시 공제료 납입방법
 - 2회분납 : 1회차(60%), 2회차(5개월후 40%)
 - 4회분납 : 1회차(35%), 2회차(2개월후 25%), 3회차(5개월후 20%), 4회차(8개월후 20%)

공제료 납부

- 예 금 주 : 사)대한의사협회(공제회)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3-01-0220-198
- 은행입금시 반드시 가입회원명(면허번호) 기재
 - ※ 이미 가입중인 회원은 안내문을 보시고 만기(갱신일)에 참조하여 가입!

가입문의처

대구 · 경북 주재사무소 Tel 053-941-7102
공제회 본부 Tel 02-794-2480, 6587, 2474(ARS 9)
Fax 02-795-1346, 792-1361

의료배상공제란?

공제회가 사업을 총괄운영

- 공제회가 공제계약 및 사건처리/심사/보상의 주체
- 안정적 위험분산기능 확보를 위해 손해보험사(삼성화재)에 재공제 가입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 진료계열별 6개 Group으로 가입체계를 분류
- 보상한도액의 현실화(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의료사고분쟁의 현실적 해결책 제시

- 타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지원 (서울본부 외 주요 지역별로 공제회 주재사무소 설치운영)
- 회원 권익보호, 합리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현(민사소송 대행 가능)

의료배상공제 상품내용

보통약관 (기본담보)

- 의료과실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민사소송 대행 가능)

특별약관 (선택담보)

- 경호비용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비용을 보상(경호원 출동 서비스)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 수진자의 사망(뇌사 포함)시 수진자측이 의료분쟁을 제기한 경우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
- 벌 금 :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 형사방어비용 : 의료사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 초빙의 및 마취의 :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공제자의 수진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 피공제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초빙의/마취의)의 의료행위 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회원전용 콜센터

1577-2074 개설

■ 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문의에 대해 신속, 정확 그리고 친절한 답변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취합하여 회원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고 봉사하고자 회원전용 콜센터(Member's Call Center)를 개설했다.

■ 평소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회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게 된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회원전용 콜센터」 1577-2074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책자 미제작 관련 안내

■ 의협에서는 매년 해당년도의 요양급여비용(수가)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여 왔으나, 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2010. 4. 25)에서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책자는 제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2010. 12. 17)를 바탕으로 한 각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의원과 병원 행위금액을 계산하여 파일로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파일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온라인 공문방 참조

DUR Q&A 게시판 신설 안내

■ 금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확대 시행되는 DUR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의

협 홈페이지(www.kma.org)에 [DUR Q&A 게시판]을 신설했다. [DUR Q&A 게시판]에는 중요 공지사항 및 Q&A,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금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질문을 올리면 신속히 답변하도록 구성됐다.

※ 담당부서 : 보험국 보험약제팀(02-794-2474 내선 531)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복지부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후에도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등의 관리취지를 감안하여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 복지부에서는 시장형 실거래제도 시행 후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기관등 현지 조사 실시 예정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장려

■ 사업대상

가. 대상기관 : 전국 의과 의원(전체 표시과목) 중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

나. 대상상병 : 외래에서 발생한 전체 상병(중증·희귀질환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과 전염병 상병은 제외)

다. 대상 약품비 :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의약품 등은 제외)

중국 위조약품 관련 협조 요청

- 최근 중국에서 항암제 '아바스틴주'의 위조약품 사용으로 인해 실명까지 이른 유해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중국에서 문제가 된 위조약품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된 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원들에게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취급·사용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신고
- '아바스틴주'는 중앙 분야에 한해 정맥투여를 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안과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허가사항에 적합하도록 처방·투약해 주실 것을 당부

의료실손보험 관련 횡포에 관한 사항 안내

- 의료실손보험에서 유방진료 관련 의료기관에서 맘모톰 수술한 환자를 입원시키고 일부 6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환자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정황으로 경찰은 환자 유치 등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잡고 의료기관의 일부 기록지 등을 압수(2010년 8월 중순)하여 수사
- 의협에서는 동 압수수색의 배경을 맘모톰 수술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손보협회에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한 혐의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수사하는 것은 대다수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과도하게 표적 수사하는 것을 유감 표명
- 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사항(낮에 입원할 경우 입원 시간 6시간 이상 준수)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안내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민관합동 점검에 대한 유의

-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제도를 개선 고자 관계기관 합동(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민·관 합동점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참여)을 실시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10년은 계도 위주, 11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예정)

- 추후 부재환자의 관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외출·외박 기록지를 철저히 관리(교통사고환자가 무단 외출 할 경우 기록지에 무단외출이라 적어야함)하는 등 유의토록 안내

건강진단서 관련 업무협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가 변경되어 안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결격 사유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비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가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집」안내

- 2010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급여수준 및 단계적 상향 일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개정(2010. 12. 1. 시행)을 발표
- 이에 의협에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집」을 안내(본회 홈페이지 온라인공문 참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개정

-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신체검사를 통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일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동 규정 개정안 공포(2010. 11. 2 시행)

■ 의료기관 주의사항

가. 개정 전 : 불합격 판정시 사유 기재

나. 개정 후 : 질병발견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과 관계 없이 반드시 사유 기재
(신규 채용신체검사에서 양식 사용)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관련 안내

■ 등록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0년 11월 1일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일지라도 미등록자인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바, 중증화상환자일 경우 공단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COL28 산정특례(화상) 등록대상자(disRegPrsn5)

[신규칼럼추가]

1) 특정기호(4)+등록번호(15)+등록일(8)+종료일(8)

2) 특정기호 V247~V250까지 해당 특정기호 표시

3) 등록번호 : 건강보험(10자리), 의료급여(15자리)

※ 공단 홈페이지 '산정특례 자격확인'은 기 제공 중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관련

상병 마스터파일 안내

■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개정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해 6차 개정 상병 마스터파일 내역을 안내

■ 이에 의료기관에서 청구시에는 완전코드로 청구하셔야 하고, KCD 5차 삭제코드로 청구하시면 심사불능으로 처리되오니 동 안내사항 참고(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 게시)

쯔쯔가무시증 및 브루셀라증 진단 이관 홍보

■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과에서는 쯔쯔가무시증 및 브루셀라증 의심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혈청학적 진단법을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원에 이관한 바, 현재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쯔쯔가무시 및 브루셀라의 진단교육 및 정도관리를 통하여 99%의 높은 진단 신뢰도로 진단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쯔쯔가무시증 및 브루셀라 진단과 관련하여 관할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부목이나 캐스트 재시행 관련 산정기준 안내

■ 골절 등의 고정을 목적으로 부목이나 캐스트를 시행하였으나, 환부의 부종 감소,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교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다만, 부목이나 캐스트를 환자가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등 환자의 귀책이 명백한 사유로 다시 시행하는 부목 또는 캐스트의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함이 타당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 전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9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6.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0.0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회귀의약품센터	67.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6.4원

의약분업 재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포스터 배부 서명요청

■ 의협「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의약분업 재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홍보포스터 배부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홍보포스터를 제작 송부(분회에서 각시군의회사회 및 병원급의료기관으로 송부)함에 따라 전 의료기관에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

■ 또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내원환자들이 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요청

※ 대국민 서명운동 양식 분회 홈페이지 → 온라인공문에서 다운로드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포항시 4개 보건단체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는 콘서트'



포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지난 11월 21일(일) 오후 7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에서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포항시 4개 보건단체의 주최로 개최된 합동 콘서트로 김은 원장(포항, 상아치과원장)의 사회로 파모니합창단의 '청산에 살리라'를 시작으로 한의사회의 '가을 노래 메들리', '님은 먼곳에' 등을 선보였다. 의사회 중창단은 '거위의 꿈', 'Prologue 먼 길-인연', '너를 보내고II', '아름다운 세상'을, 치과의사회는 이경아 회원의 플룻, 최태호 회원의 트럼펫, 김은·강석기 회원의 색소폰 연주 등과 덴포스 사운드의 '밤은 깊었네', '사랑할수록'을 선보여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출연진 모두는 우리귀에 익숙한 대중가요 '사랑으로'를 부르며, 4개 보건단체가 주최한 콘서트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

포항모자원 가족과 함께하는 2010년도 송년의 밤



지난 12월 28일 오후 6시30분 포항 코모도호텔 연회장에서 '2010년도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자가정세대, 인근독거어르신, 후원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저녁 식사와 더불어 그 동안 진료중에 틈틈이 익힌 노래와 악기를 가지고, 견일수·김용섭·문신길 회원이 참여하는 포항클라리넷 앙상블, 포사회 임종복님의 가야금 병창, 박화종 회원의 펜플룻 연주, 의사회중창단의 노래와 김우정 심평원 대구지원 직원의 노래로 포항모자원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포항시의사회에서는 만찬과 포항모자원 자녀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였고, 경상북도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포사회, 영일만 동지회에서는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웃백 남포항점에서는 모자가정세대, 인근독거어르신, 후원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2011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신년 대화의 자리인 포항시의사회 신년인사회가 1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목화예식장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석순 회장의 신년사와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덕담과 건배제의 그리고 지난해 새로 개원한 회원과 새로운 봉직회원의 자기 소개 후 회원들과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의사회

추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지난 11월 25일 6시 30분부터 동국대학교경주병원 1층 강당에서 추계 개원의 연수강좌가 열렸다. 이날 연수강좌는 경주와 포항, 영천, 영덕지역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경

주병원 이동욱 교육연구부장의 소개로 시작되어 당노병의 최신지견(내분비내과 문성수 교수), 간세포암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소화기내과 김 강 교수),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산부인과 김도균 교수), 외래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대해 교수의 강의 후에는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을 실습하기도 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시설 방문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4일 예티쉼터와 16일 대자원을 방문하였다. 예티쉼터는 경주시 기독교사회와 함께 방문하였으며, 대자원은 김장희 원장이 산티클로스로 변신하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

2010년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28일 오후 7시 경주힐튼호텔 체리룸에서 경주시의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봉구 회장의 인사와 축사가 있은 후 동국대 경주병원 최대해 교수의 CPR시연이 있었다.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으로 김대인 원장 가족의 연주와 독창이 있었으며 송준석 원장 자녀의 연주와 노래 경주시 기독교사회 회원과 가족의 연주와 합창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동시의사회

제5회 자선음악회 개최



안동시의사회와 MD양상블은 지난 11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를 열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선음악회는 700여명의 의사회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계령'을 시작으로 '그대 떠난 빈 들에 서서'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로 이어졌으며, 특별출연한 안지은 학생의 '리스트 초절기교 에튀드 10번'의 피아노 연주와 박재연 소프라노의 '사랑하는 마음', 안동시의사회 난타연주단 '와올림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어 MD 양상블은 '고향의 노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등을 끝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등 자선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도 다시 만날것을 기약했다.

2010년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6일 오후 7시 안동병원 13층에서 안동시의사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안동시의사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장인사와



건배제의, 경품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제역 극복 현장 격려 방문



지난 12월 20일(월) 안동시의사회 집행부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초비상사태인 안동시청을 방문하여 방역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광민 회장은 권영세 시장에게 빠른시일내에 구제역이 극복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원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미시의사회

아이사랑 음악회 개최



지난 10월 8일 오전 11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엄마와 아이

가 행복한 제1회 구미시 아이사랑음악회를 구미시보건소 주최, 구미시의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임산부와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했다.

음악회는 현악 3중주, 팝페라 테너, 오페라 클래식 해설 등으로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였으며,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회원이 참여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

2010년도 전반기 총회 개최



2010년 전반기 회무보고를 겸한 총회를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호텔 금오산에서 개최했다.

류성훈 회장의 개회사와 직전회장 및 기획·재무이사 노고를 치하하는 메달수여식을 가졌으며, 주요 의료현안으로는 구미 YMCA 연계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의료지원을 협의하는 등 회원 상호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지난 10월 31일 회원 및 가족동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가야산 만물상 일원으로 가을산행을 다녀왔다. 회원 및 가족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산행은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의 절경과 만물상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특별히 준비된 성주 가야산 막걸리를 곁들여 이번산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의약단체 보건관계자 간담회



구미시의사회서 주최한 건강보험관리공단 구미지사와 구미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해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0년 9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운영설명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가 있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내를 통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에 관한 설명을 끝으로, 각 의약보건단체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희망 2011년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 동참

지난 12월 16일 오후 2시, 구미시청광장에서 '2011희망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 생방송에 참석하여 류성훈 회장 외 회원일동으로 일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2010년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금오산



맥식당에서 저물어가는 2010년 한해 동안 수고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구미시의사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만찬과 함께 선물증정 등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특히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앞으로 더욱더 의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모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류성훈 회장의 송구영신을 외치며 건배 제의로 막을 내렸다.

지역아동센터에 응급의료상자 전달



지난해 초부터 구미YMCA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건강·보건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에 응급의료용품 및 의료서비스 봉사활동을 논의해 오다 우선적으로 구미지역 46개 지역아동센터에 응급의료상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구미YMCA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응급의료상자 전달식에는 류성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구미YMCA 김철호 이사장, 구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오경윤회장 외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었다.

를과 입원건수, 1시간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2시간 내 스텐트 시술 등 7가지 항목에 걸쳐 실시한 가운데 경북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급성 심근경색 진료부문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입원건수 96건에 생존지수 105.3을 기록해 사망률이 낮았고,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도착에서 첫 풍선 확장술까지 소요시간과 아스피린 투여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포항세명기독병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지난 1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포항 필로소호텔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등 의료계·언론계·학계·종교계·여성계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명기독병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기념식 1부 행사는 세명기독병원의 60년 역사가 담긴 영상물 상영에 이어 박승호 포항시장의 축사와 한동선 원장·류인혁 부원장의 인사말, 내빈소개,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과 감사패 전달식,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에스포항병원

‘의료 사각지대’ 울릉도 봉사

울릉도 무료 진료행사는 대아가족 계열사인 경북일보와 에스포항병원이 주최하고 대아고속해운과 울릉리조트 대아호텔이 후원한 행사로 울릉농협 2층에서 진행됐으며 이틀동안 약 300여



명의 울릉지역 주민들이 다녀갔다. 울릉도는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들의 뇌질환과 경사가 많은 섬지역의 지형 조건으로 인해 인체를 지탱해주는 척추질환이나 관절질환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겨울철 급증하는 뇌혈관 질환을 집중 예방하기 위해 의료 봉사 행사를 마련했으며, 신경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 5명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제사 등 약 40여명이 울릉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겼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전립선 대국민 건강강좌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병원 1층 강당에서 “전립선암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해 전립선암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6년 사이 남성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전립선 암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여 전립선 암의 위험성과 조기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중년남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이경섭 병원장이 전립선 이야기란 주제로 전립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선정

지난 10월 27일 경주보훈지청에서 대구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계약 체결을 하고 1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전담하게 됐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진료편의와 보훈병원 진료적체 해소 및 양질

의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해 적격성 심사와 보훈단체 의견수렴, 병원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위탁병원을 선정했으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 소화기내과, 심장혈관내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 세분화된 30개의 다양한 진료과와 최첨단 MDCT(다중검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LINAC(방사선 치료장비), 최신 복강경 수술 장비, 최대 소화기센터 등을 우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진료편의 제공으로 병원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구·경북 최초 “비뇨기과 전립선 레이저 수술 장비 도입”



대구·경북권에서 최초로 최첨단 전립선 레이저 수술 장비인 홀륨 레이저를 11월 12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홀륨 레이저는 전립선 비대증 및 결석 제거에 사용하는 장비로 최소 침습방법으로 전립선을 감싸는 바깥막과 비대해진 전립선 사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비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기존의 전립선 절제술 수술 시 출혈과 입원에 대한 부담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한 단점을 최대한 낮춘 획기적인 장비로 비뇨기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경주농협과 로컬푸드 운동 협약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와 지난 11월 23일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운동' 협약식을 개최하고 병원에서는 경주 지역의 쌀과 농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기로 하고 농협은 농산물을 보다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로컬푸드운동'은 지역농축산물의 지역소비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영양 및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 국가격리병상 확충 의료기관 선정

지난 12월 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격리병상확충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병원은 국비 12억을 지원받아 2011년 말까지 격리병상 시설 확충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격리병상은 본관 8층에 음압 5개 병상, 일반격리 26 병상 총 31개 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게 된다.

2010년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 참여 병원에는 광주(전남대학병원), 울산(울산대학병원), 경기(의정부성모병원), 충남(단국대학병원), 경북(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선정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격리병상이 확보되게 되면 SARS, 조류 및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로 신종 전염병의 확산 및 노출위험을 최소

화하여 신종전염병 확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 1월에서 3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157개 진료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흡연력 조사, 신경학적 검사 실시, 연하장애 선별고려, 뇌영상검사 실시 등 12개 과정지표와 뇌졸중 치료 관련과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상근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평가했으며 9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1등급을 부여했다.

안동병원

전국규모 학회 개최, 복강경 수술 생중계

대한내시경보강경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위암, 직장암 복강경 수술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11일 개최된 심포지엄은 총 3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를 비롯해 지역 의료진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암의 복강경 수술을 주제로 한 1부에는 김명우 국립암센터장과 정봉수 안동병원 진료부장(2차병원 외과보강경 수술연구회장)을 좌장으로 김갑중 서울 아산병원 교수, 하동엽 경주동국대병원 교수,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 이태순 대구드림병원장, 한철 순천성가롤로병원 과장이 각각 연제발표를 했으며, 직장암의 복강경 수술을 주제로 한 2부에는 김준기 서울성모병원 교수

(대한내시경보강경외과학회 이사장),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을 좌장으로 최규석 경북대학교수, 임상우 전남대화순병원교수, 정봉수 안동병원 진료부장, 정승규 서울양병원 부원장, 정종원 창원한마음병원 암센터소장이 연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3부는 심포지엄 행사장인 컨벤션홀과 안동병원 중앙수술실을 연결해 위암 및 직장암 환자의 복강경 수술장면으로 생중계(Live surgery)했다.

아시아 방사광 의료영상학회 안동병원서 3일간 열려

아시아 방사광의료영상학회가 지난 10월 29일부터 2박3일간 안동병원에서 개최됐다. AMSI는 방사광 가속기에서 도출된 X-선을 활용해 첨단의료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응용치료 하는 연구모임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의료진과 기초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학회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됐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제주학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안동학회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눠 '방사광 영상기법', '가속기 최신소식', '방사광의 의생명학적 응용' 등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이뤄졌다.

안동성소병원

다문화가족 초청 화합 한마당

지난 10월 28일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에서는 안동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7개 시군 다문화가족과 유관 직원 200여명이 참여하여 안동MBC 어린이합창단 공연과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자랑 등 화합잔치를 열었다.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은 안동MBC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 동요와 가요 등 합창과 중창 공연과 7개 시군 다문화 가족이 직접 출연하는 스포츠댄스와 밸리댄스, 노래자랑 등 다양한 화합 잔치로 이어진다.

‘소아 저성장 극복 시나리오’ 강연

방인국 소아청소년과장이 저성장으로 고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 및 중학생과 그 부모를 위한 ‘소아청소년 저성장 극복 시나리오’를 제목으로 대시민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부터 안동성소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건강강연은 안동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의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소아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각종 질환과 요인들로부터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내 외부 원인은 물론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됐다.

청송군보건의료원 진료부분 위·수탁 양해각서 체결

청송군과 안동성소병원은 지난 11월 16일 오전 11시 청송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송군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진료부분 위·수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평소 청송군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원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의회를 구성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군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3기 성소백세대학 졸업식

안동성소병원 부설 성소백세대학 제3기 졸업식이 지난 12월 10일 오전 11시 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기 졸업식에는 118명의 학생이 졸업하며 안동시장 표창을 비롯한 안동시교육장상 등의 표창이 있었다. 이번 제3기 성소백세대학은 지난 3월 입학식을 갖고 1년 2학기동안 각계 지도층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고, 청와대와 국회의원사당 견학, 노래 및 율동, 건강강좌 등 다양한 대학생활을 영위해 왔다.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환자 위안공연행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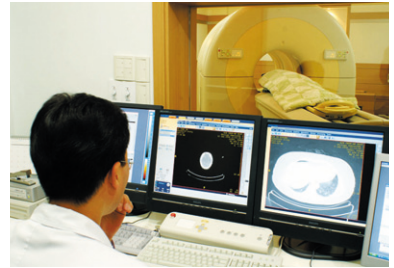
지난 10월 13일 오후 1시, 병원 로비에서 민요춤 공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칠곡군청 어르신전당 실버날개무용단은 민요를 비롯한 가요 등을 춤과 함께 선보였다.

이날 공연을 선보인 실버날개무용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구성된 팀으로 여가활동으로 배우기 시작한 무용이 현재는 지역 행사 및 복지기관 등에서 공연 봉사를 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열린 ‘2010 전국 춤 경연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은 정기적으로 병원로비에서 문화공연 행사를

마련,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돕고 있다.

경북서부지역 최초 최첨단 PET-CT 도입



암 진단 정밀장비인 PET-CT(양전자 방출컴퓨터단층촬영기)를 도입, 2011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도입한 PET-CT는 독일 지멘스사의 Biograph 16LSO HI-REZ 기종으로 한번의 검사로 전신검사가 가능하고 암은 물론 뇌종양의 중증도, 퇴행성 뇌질환, 심장질환 등을 찾아내며, 암의 진단과 더불어 병기결정, 전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가능해 암환자들의 수술 후 재발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치료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안전 개선활동 훈련 PAOT 프로그램 선보여



저비용으로 작업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참여형 개선활동 훈련 PAOT (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프로그램이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5일 PAOT(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형 개선활동기법(PAOT)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 활동 훈련을 실시하고 추후관리 방문 지도를 통하여 안전보건 개선 활동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순천향병원 산업의학과에서 2003년 전국 최초 워크샵을 개최한 이래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보건관리대행업무 20주년 기념식 개최



구미공단 사업장(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업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시작한지 20년이 됐다. 이에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12개 기업체를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보건관리대행은 효율적인 근로자 보건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유지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산업의학전문, 산업보건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기업체를 방문하여 보건관리, 건강관리,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분야에 대해 교육, 관리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 질병의 조기발견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어 오천환 병원장은 “20년간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업보건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행사 ‘희망메시지’ 전달



간호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마련한 행사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아병동에서는 산타가 등장해 선물을 주는가 하면 어르신이 많은 신경과병동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씻기 봉사, 내과병동에서는 윗판이 벌어져 의사와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들은 다과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면회가 제한되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아기사진을 찍어 부모에게 전달했으며 투석환자를 대상으로는 추첨 이벤트를 개최하여 상품을 전달했다.

로비에서는 내원객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 간호사들이 직접 발리댄스를 선보였고 북북북게임으로 환자들에게 더 큰 재미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은 또한 지난 12월 21일 구미보건소를 방문, 관내 저소득층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제2회 CS경진대회 개최

지난 11월 12일 오후 4시부터 병원 7층 대강당에서 ‘제2회 CS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달간 각 부



서로부터 활동내역을 공모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 실천했던 CS 활동을 직접 제작한 동영상(UCC)을 통해 발표하였고, CS 활동범위는 각 부서마다 노력을 기울여온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활동, 고객불만 이나 절차 개선활동, 고객응대 태도 변화활동 주제 등이다.

CS 경진대회 당일 열띤 경연을 통해 8개 팀을 선정,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각 팀에게 표창장과 부상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지역 처음으로 뇌 종합관리 검진 개시



지난 11월 11일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방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협진체제로, 뇌의 종합관리를 위한 종합검진을 개시하여, 환절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뇌졸중(중풍)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뇌혈관 종합검진은 뇌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뇌졸중 및 뇌종양에 대한 두려움 해소, 절감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며, 실속검사, 기본검사, 고급검사로 구

분한 3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구미차 병원은 뇌혈관 종합검진 대상자에게 예방의학과 등 4개과 전문의 협진체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ONE-STOP진료가 최대 장점이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회봉사활동 전개



지난 11월 30일 병원 내 교직원 식당에서 김장 1,000kg을 담궈, 지역 차상위계층 방문해 전달하여 싸늘한 초겨울에 지역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구미차병원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보내기”란 사회봉사활동 일환으로 김장 담그는데 고민을 하는 지역 차상위계층 50세대를 위해 세대당 20Kg씩 전달했다. 이번 김장은 구미차병원 각 부서장과 김장 담그는데 자신이 있는 교직원, 그리고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이 합심하여 내 가족이 먹는 정성과 성의로 만들어 나눔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환우와 함께하는 송년 큰잔치



지난 12월 7일 지역주민들과 입원환자 대상으로 7층 강당에서 환우와 함께하

는 2010년 송년 큰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환우 및 환우보호자·지역시민들 모두가 201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행사에 관람객 약20여명이 모여 구미시 연예인 한마음예술봉사단 회원들이 국악, 가요, 댄스 및 스포츠댄스,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병원에서 과일, 떡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여 즐거운 행사를 진행했다.

2020년 미션·비전 선포식



지난 12월 10일 구미금오산호텔에서 차병원그룹 창립 50주년, 구미차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룹 차광렬 회장 및 조수호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미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개원 20주년인 2020년을 향한 이번 미션·비전 선포식은 구미차병원의 존재의 이유와 미래를 지향하는 목표를 전 교직원이 협의하여 일심동체로 지역민의 건강으로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최상의 진료와 연구, 교육을 추구한다”는 미션과 교직원을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병원”, 지역민에게는 “신뢰받는 병원”, 환자에게는 “환자와 교직원이 한 가족이 되는 병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란 핵심가치로 세부 실천사항을 정하여 전 교직원이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의료계를 선도하는 재도약의 원년

으로 출발을 다짐했다.

구미강남병원

김장 김치 나눔 행사 가져



지난 11월 18일 전 직원이 동참하여 500여 포기 김치를 직접 담아 지역 내 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에게 김치 나누어 주기 행사를 가졌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생각하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 따뜻한 이웃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도 돕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경산세명병원

불우이웃에 쌀·라면 기증



경산 세명병원은 지난 11월 23일 경산 시청을 방문,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쌀 60포대(20kg)와 라면 90박스(시가 45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날 최영욱 이사장은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당초 법인설립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사회

영천시 소개

별의 도시 영천시는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은 경주시와 포항시, 서쪽은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남쪽은 청도군, 북쪽은 청송군과 군위군이 접하고 있는 경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교통은 중앙선과 대구선 철도가 동서로 뻗어 있고 경부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통과하고 있는 4통 5달의 교통 요충지이다. 1981년 7월1일 법률 제 3425호(1981.4.13 공포)로 영천읍이 시로 승격(9개동)하였으며 1995년 1월 영천시와 영천군이 합쳐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되었다. 2010년 현재 행정구역은 금호읍 및 청통면·신령면·화산면·화북면·화남면·자양면·임고면·고경면·북안면·대창면 등 10개 면과 동부동·중앙동·서부동·완산동·남부동의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920.29km²로 경상북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0만여명이고, 태백산맥의 정기를 담은 보현산과 서쪽으로 팔공산, 동쪽으로 운주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천(자호천, 고경천)과 북천(신녕천, 고현천)이 합류하여 금호강 상류를 형성하고 있다.

영천시 의사회 소개

1) 연혁 및 의료기관 현황

영천시 의사회는 1987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다. 오직 1974년 10월 대구의사회

회원간의 단합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영천시 의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및 송년 모임, 정기 이사회와 사안별로 긴급 이사회와 반모임을 통해 의사회의 주요사항과 최근의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의사회 역대회장

- 초대 주석봉 (영생의원)
- 2~5대 김태원 (성신의원)
1987~1996년
- 6대 강돈규 (강돈규산부인과의원)
1996~1998년
- 7~8대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1998~2002년
- 9대 김대환 (베드로내과의원)
2002~2004년
- 10대 이지욱 (이내과의원)
2004~2006년
- 11대 이석주 (녹십자외과의원)
2006~2008년
- 12대 배경일 (경일의원)
2008~2010년
- 13대 이동길 (이동길내과의원)
2010~현재

보의 경북의사회 소식판 지역의사회 탐방 기사 한 장이 유일하다. 그 기사에 의하면 1974년 당시 영천군 인구는 20만 명 이었고, 영천시 의사회원은 11명 이었으며, 매 월말 치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친목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회장은 김영석 선생님이었고, 주석봉 선생님이 총무를 맡아 10여년간 친목 형태의 의사회를 유지하였다.

그 후 주석봉 선생님이 기록상으로 초대 회장님에 취임하였으며, 1987년 2대 김태원 회장님과 정만진 총무가 취임한 후 의사회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규칙적으로 의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의사회의 기록도 보존되어 있다. 이후 김태원 회장님이 5대까지 연임하면서 기반을 다졌으며, 그 후 강돈규 회장이 배턴을 이어받았고, 의약분업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의권투쟁이 치열하던 2000년을 전후하여 7대와 8대 회장을 역임한 정만진 회장 시기에 의사회 사무실을 개소하고 간사를 채용하는 등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후 현재 13대 이동길 회장까지 여러 회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의 탄탄한 영천시의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영천시에는 종합병원으로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이 있고, 6개의 병원, 57개의 개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총 129명(개원의 60명, 근무의 47명, 공보의 21명, 휴직 1명)이다.

2)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회원간의 단합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영천시 의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및 송년 모임, 정기 이사회와 사안별로 긴급 이사회와 반모임을 통해 의사회의 주요사항과 최근의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동문회 및 취미 모임을 활성화되게 독려하며 특히 2010년부터 시

1. 1974년 10월 대구의사회보에 실린 기사
2. 영천시의사회 골프모임



작한 골프 모임은 분기별로 개최되어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천시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영천시 장학회에 후원금을 기탁하여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영천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후원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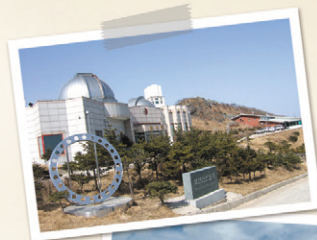
(정리 : 공보이사 이종호)

☑ 임원명단 : 고문 김태원 · 정만진 · 김대환, 회장 이동길, 부회장 김대연 · 권영수, 총무이사 김성기, 재무이사 권범찬, 기획이사 최재성, 학술이사 권오양, 법제이사 이태엽, 의무이사(3반장겸임) 김인정, 보험이사(5반장겸임) 조진태, 공보이사 이종호, 정보이사 하달봉, 정책이사 권성철, 체육이사 양사규, 감사 황중하, 1반장 이종형, 2반장 박남규, 4반장 김인환, 6반장 권장규

영천시 주요 관광지 및 볼거리

1) 보현산 별빛축제

매년 4~5월에 국내 최대의 국립보현산천문대와 연계한 체험형 천문 과학행사로서 여러가지 참여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최고의 별자리 관측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축제로 별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하는 영천의 대표적 축제이다.



2) 시안미술관 (<http://www.cyanmuseum.org>)

2004년 4월 17일 시안아트 센터로 개관, 2005년 정부에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2004.12.22)을 마치며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대구, 경북을 통틀어 두 개 밖에 없는 등 록 미술관 중 하나이며 개관부터 신생 미술관답게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다양한 작가의 다양하고도 파격적인 기획의 수준 높은 전시들을 선보이며 국내 미술기관계에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3) 영천와인투어 (<http://www.ycwine.or.kr/sub/sub/main.htm>)

영천은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당도가높은 양질의포도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포도를 이용하여 와인을 제조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천와인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영천와인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있고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4) 운주산 승마 자연 휴양림 (<http://www.unjusan.co.kr/main>)

국내 최초의 산림욕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승마 자연 휴양림으로 73ha(733,932㎡)면적의 울창한 리기다 소나무 숲속에 아름답게 꾸며진 본 휴양림은 숲속의 집, 다목적구장, 숲속놀이터, 산책로, 수변관찰데크, 주말농장, 야외 물놀이장 등의 휴양림 지구와, 실내·외승마장, 산악승마로, 외승로 등의 다양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 체험 지구로 구성되어 산림휴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한 휴양림 인근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탄생지이며 선생을 모신 임고서원과 도계서원, 박노계집판목, 돌할매, 노계시비 등의 명소가 있다. 영천댐과 동양최대의 보현산 천문대, 천문 과학관, 보현산 일대에 조성된 월빙 숲과 영천댐 하류에 조성된 강변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매우 각광받고 있다.



칠.곡.군.의사회

칠곡군 역사

칠곡군은 예로부터 국방의 요충지로 조선시대에는 가산산성을 축성하고 칠곡 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조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 세계 전사에 빛나는 다부동 전투에서 반격의 기틀을 마련한 호국의 고장이다. 내륙 중앙에서 교통 요충지의 편리성으로 산업도시와 근교 농업 도시로 발전하는 현재 시 승격을 앞두고 3개읍, 5개면의 칠곡군을 소개한다.

신라시대 팔거리현이 고려시대 팔거라 했고 달리 칠곡(七谷)으로 부르기도 했다. 조선 인조18년(1640) 가산산성이 축성되면서 팔거현이 칠곡도호부(七谷都護府)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칠곡(七谷)이란 이름은 팔거현의 명산 가산이 일명 칠봉산(七峰山)으로도 불리는데, 산정(山頂)에는 나직한 7개의 봉(峰)으로 둘러싸인 평정(平頂)을 이루고 골짜기도 사방 7개로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명칭을 따서 「七谷」이라고 했는데 그후 일곱 칠(七)자를 칠(柒)자로 바뀌어 「柒谷」으로 사용하다가 칠(柒)과 같은자인 칠(漆)로 고쳐「漆谷」으로 다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옷나무가 많아서 옷칠(漆)자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1640년 인조(조선 16대, 재위 1623~1649) 18년에 이르러 가산산성을 쌓고 도호부를 두어 칠곡이라 하였는데 1895년 고종(조선 26대, 재위 1863~1907) 32년에 칠곡

칠곡군의사회의 원로이신 낙동의원 최형석 원장님은 1959년 개원이래로 의사회내의 일에 자문을 주시고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시며 현재도 의욕적으로 진료에 임하시며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칠곡군의사회 역대회장

- 1950~1952 장병필
- 1953~1961 신현철
- 1962~1967 장병필
- 1968 강신완
- 1969 장병필
- 1970 강신완
- 1971~1974 하보원
- 최형달
- 장병필
- 박동열
- 방일수
- 1992~1994 최형석
- 1994~1997 이준희
- 1997~2000 양두석
- 2000~2001 이병기
- 2001~2002 이덕순
- 2002~2003 김상관
- 2003~2005 김영조
- 2005~2007 이원석
- 2007~2009 이태규
- 2009~2011 전용성



군이 되어 대구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군면 폐합에 따라 인동군의 9개 면과, 신라 때에 대목 또는 칠촌·곤산현이었던 약목면과 병합하고 군청 소재지를 왜관으로 옮겼다.

칠곡군 의사회 소개

칠곡군의사회는 1950년부터 결성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현재 6개 병원, 49개 의원으로 매년 1회의 정기총회, 매월 1회의 월례회를 열어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회원간의 친선 도모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참석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유대도 돈독하여 타 시군의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칠곡군보건소 및 공공기관과 연계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칠곡군의사회의 원로회원이신 낙동의원 최형석 원장님은 1959년 개원이래 의사회 내의 일에 자문을 주시고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시며 현재도 의욕적으로 진료에 임하시며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리 : 회장 전용성)



◆ 임원명단 : 회장 전용성, 부회장 이영헌, 총무이사 김찬중, 재무이사 김정근, 감사 김거한

칠곡군 주요 관광지 및 볼거리

1) 유학산

가산면 다부리, 학산리와 석적읍 성곡리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험준한 산으로 암벽이 병풍을 이루고 여러종류의 동물이 서식하며, 느릅나무, 박태기나무, 자귀나무 등이 많이 자생하고 있다.

예부터 학이 놀던 명산으로 도봉사, 신질바위, 정상부근의 갈대밭이 볼만하다. 6.25 전쟁 때는 다부동전투의 핵심 방어고지가 되어 처음으로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승리로 장식하였고 북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호국의 산이다.



2) 가실성당

1923년 건축된 고딕식의 건축물로 웅장함과 내부의 화려한 장식을 자랑한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건축사적 종교사적 가치가 크다.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348호다.



3) 낙동강 구철교

이 다리는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해 부설한 경부간 군용철도의 교량이다. 6·25 전쟁시 적 도하 방지를 위해 1950년 8월 3일 폭파된 경간(經間)은 그 해 10월 총반격때 침묵등으로 긴급 복구한 이후 계속 인도교로 활용해 왔다. 복구후, '호국의 다리'로 명명되어 전쟁과 호국의 산 교육장으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도로 활용되고 있다.

4) 송림사

팔공산순환도로변에 있는 신라고찰로서 대구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절인데 조선 세종 때에는 교종, 선종 36사의 하나에 포함된 사찰이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에 자리를 넘겨주고 그 말사가 된 절로서 544년(진흥왕5) 진나라에서 귀국한 명관이 중국에서 가져온 불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창건한 사찰이다.



경북의사회보 제39호 내용 중 안동시의사회 역대회장은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안동시의사회 역대회장

1대 권영찬	10대 권오현 (권오현내과의원)	19대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2대 김명환 (제동의원)	11대 박창희 (성누가의원)	20대 유동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3대 허동섭 (광제의원)	12대 남주현 (남주현외과의원)	21대 권세홍 (권방사선과의원)
4대 남우선 (도립병원장)	13대 정창근 (정창근이비인후과의원)	22대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5대 허동섭 (광제의원)	14대 박양화 (박내과의원)	23대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6대 오복수 (오내과의원)	15대 이동일 (이동일외과의원)	24대 최현욱 (동산정형외과의원)
7대 이명영 (이명영이비인후과의원)	16대 이수연 (이수연산부인과의원)	25대 김도형 (현대산부인과의원)
8대 권오현 (권오현내과의원)	17대 이승욱 (이소아과의원)	26대 김목환 (김목환학문외과의원)
9대 박무철 (박무철산부인과의원)	18대 최종두 (최정형외과의원)	27대 김광인 (안동제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매듭

- 2010년도 보령 수필 문학상
은상 수상작

지난해 전라북도의회에서 한지로 만든 고무신 공예품을 선물 받았다. 그 공예품에 오색실로 엮은 매듭이 연결되어 있다. 참으로 고와서 책상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 섬세하고 여성스럽기만 해서 눈을 땔 수가 없다. 보잘것없고 나약한 실오라기로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매듭을 만들었는지 존경스럽다. 보면 볼수록 고와서 틈이 나는 대로 눈길을 주곤 한다.

야영을 하거나 단체생활을 하면서 매듭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낚시 바늘을 묶을 때도 풀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만든다. 어부들은 배가 출항하지 않을 때는 틈틈이 어망을 손질 한다. 아주 빠른 손놀림이지만 터진 그물 사이로 매듭을 만들면서 엮는다. 어부들에게 매듭은 삶이고 생계수단이다. 산악 등반가에게 역시 매듭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일에 만들어진 매듭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해부학 실습시간에도 많은 매듭을 만들었다. 근육과 신경을 찾아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매듭으로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때 매듭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그대로 습관으로 굳어졌다. 해부학 교수님의 손 모양을 눈여겨보면서 그대로 답습했다. 인턴시절에는 봉합 실을 볼펜에 묶어 매듭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수술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오래 몇 차례 손가락 운동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때의 매듭은 풀어지지 않고 실의 방향이 꺾이지 않도록 가능한 작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매듭은 유형의 매듭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매듭도 있다. 근래에는 보이지 않는 매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무형의 매듭 하나가 또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매듭이 아닌가 한다.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매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형체가 없는 매듭이야말로 의사로서 일하는 동안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매듭은 유지되어야 하는 매듭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반드시 풀어야 할 매듭도 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면서 마지막 절차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풀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만드는 일이다. 결찰은 너무 조여도 안 되고 너무 헐거워도 안 된다. 그건 오로지 봉합하는 의사의 감각에 따를 뿐이다. 아직까지 로봇이나 의료 기기가 그런 감각까지 제어할 정도로 발달되지는 못했다. 적당하게 유지된 실의 장력은 상처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되도록 도와주며 최대한으로 기능을 보존하도록 해준다.



이 종 규 원장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울진)



매듭이 어찌 봉합하는 일만 있겠는가.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매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에 임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듭은 모든 의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희열의 순간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원만한 신뢰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위약(플라세보)만으로도 명의를 되지만 매듭이 있는 관계라면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 해도 돌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매듭은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매듭도 있다. 그런 매듭이야 말로 생각지 못했던 당혹감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엉뚱한 매듭을 만들지 않는다. 노련한 의사는 구태여 매듭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언제나 훌륭하고 멋진 매듭으로 마무리를 한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 행여 내가 만든 매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뒤돌아보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들은 매듭의 절실한 필요성 보다는 풀어지지 않는 매듭으로 인해서 노여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할 뿐이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유무형의 모든 매듭이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칫 잘못 엮어진 매듭은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매듭으로 남을 수가 있다. 만들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려운 게 매듭이다. 오해의 매듭이 있는가하면 이해의 매듭도 있다. 또한 매듭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만들어져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곳의 매듭은 거추장스럽고 기능을 약화시키고 불편할 뿐이다. 한번 만들어진 매듭을 다시 풀어 원래상태로 되돌리기란 참으로 짜증스럽다. 물론 대다수의 매듭은 매듭 그자체로 잘 유지가 되어야 하겠지만 풀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이해의 매듭은 때로 오해를 받는 매듭이 될 수도 있다. 개복수술 후 복막을 봉합하는

봉합사가 흡수되지 못하고 이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술을 하는 당시에는 이해의 매듭이 되지만 이차적인 감염을 일으키면 오해의 매듭으로 변한다. 의사는 이런 경우를 가끔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매듭이다. 가능한 형제 없는 매듭은 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건 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첩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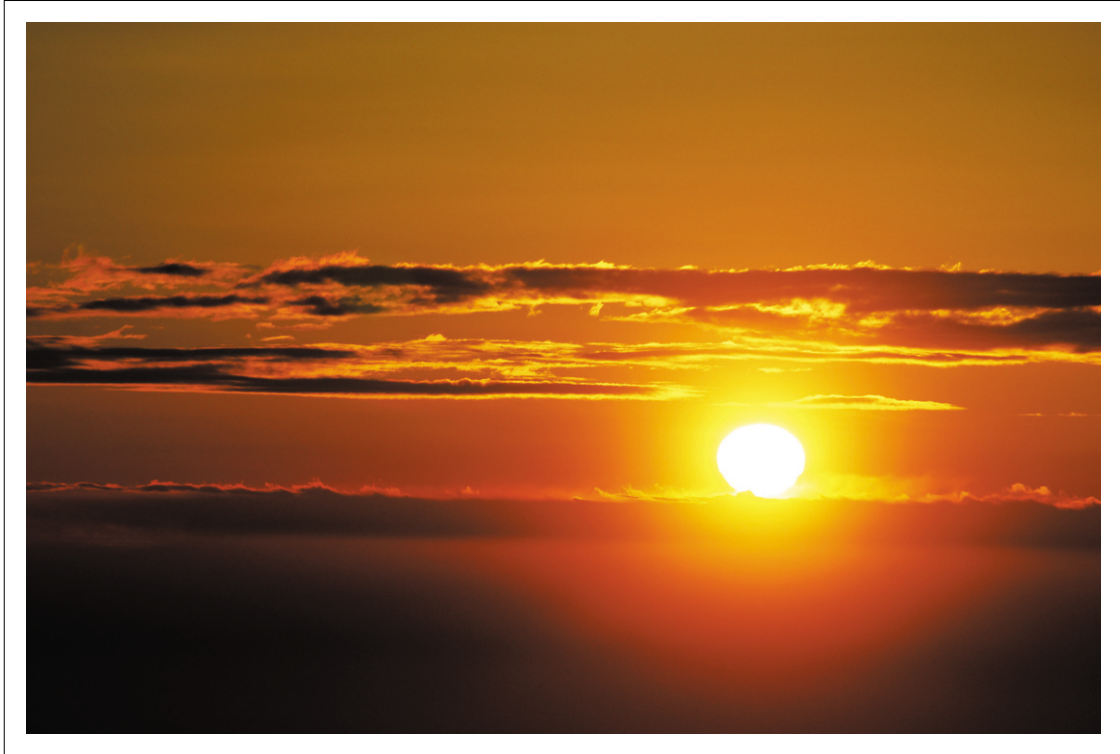
머칠 전에 진료실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리던 환자를 봉합해준 적이 있다. 서로간의 기 싸움을 하던 일이 결코 유쾌하지는 못했다.

“이 상처 때문에 열흘이나 되는 추석 황금연휴를 잡쳤습니다.”

말끔하게 치유된 상처를 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한 땀 한 땀을 정성스레 꿰맸던 만큼 다시 매듭부위를 끊어 봉합했던 실을 제거할 때의 쾌감은 환자나 의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마무리 처치를 한 뒤 의사와 환자는 서로 후련하고 만족한 기분으로 싱긋이 웃으며 눈이 마주쳤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나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환자들과 공감을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매듭을 제거하면서 또 마음속에 얽혔던 무형의 매듭까지 제거할 때의 느낌은 참 후련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듭까지 풀어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희열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의 매듭이 있지만 대개의 매듭은 불편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매듭을 풀고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머뭇거리릴 이유가 없다. 오늘날의 매듭에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너무도 강조되다보니 훈훈하고 너그러운 정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속의 매듭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저변에 질게 깔려있는 불신풍조는 풀어버리지 않은 매듭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매듭이야말로 미뤄놓은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신묘년 새해 일출



촬영장소 1월 2일 07:40 지리산 천왕봉

카메라 SONY alpha-350

동반자 김태국(구미), 장태영(구미), 권옥환(영덕)



오 춘 석 원장

오연합이비인후과소아과의원(구미)

새해 첫 날 07:20 대구 범어로타리에서 출발하여 함양 백무동에 도착,
 아침식사후 11:10, 전날 폭설로 출입통제된 한신계곡을 우회하여 장터목으로 올라가
 연하봉, 촛대봉을 지나 세석산장에 16:30분에 도착, 여장을 풀고 구룡포 과메기와 약간의 술로
 연땀을 녹이고, 삼겹살과 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중만 시키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새벽4시, 전날과 달리 바람 한점 없는 청명한 날씨,
 새벽하늘 무수한 별빛들이 눈쌀인 지리 능선을 희번덕 밝힌다.
 '뽕뽕뽕' 어제 왔던 눈길을 다시 밟으며 06:00 장터목에 도착하여
 떡 한조각으로 충전하고 천왕봉으로 향한다. 시나브로 여명으로 하늘이 열린다...
 걸음을 재촉하여 07:10 드디어 천왕봉에 올라섰다... 시린 손끝, 발끝 동동거리며...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을 기다린다...
 얼마가 지났을까.. 떠 오른다... 그것도 붉게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새해일출이...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 잠시 소원도 빌어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장터목에 내려와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리산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하산한다...
 14:00 백무동 원점회기

골드베르크 변주곡

- 단순한 주제의 무한한 아름다움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바흐의 가장 매력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바흐는 딱딱하고 어려우며 뭔가 고루한 느낌의 음악인 것 같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아름다움, 특히 주제곡인 아리아의 단순하면서도 명상적인 선율속에 숨어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와 같은 편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인간이 만들어낸 변주곡 중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작품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이렇게 짧고 단순한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이토록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변화무쌍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바흐의 다른 곡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 한 곡만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은 음악사에서 여전히 불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그 다양한 변화의 조화로움에 감탄하였던가.

음악학자 가이링거(K. Geiringer)는 바흐가 이 변주곡에서 클라비어 음악의 여러 가지 분야를 총결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거대한 작품은 작곡자의 끝없는 상상력과 최고의 기술적 수완이 발휘된 작품으로서, 18세기의 클라비어 변주곡 중 이와 견줄만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곡과 에피소드

이 곡은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에피소드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1802년에 포르켈이라는 사람이 펴낸 바흐의 전기속에 이 작품의 작곡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흐가 지내던 드레스덴 주재 러시아 대사였던 카이제를링크 백작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골드베르크라는 첼발로 연주자를 고용하여 그가 잠들 때까지 밤마다 옆방에서 첼발로를 연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불면증은 점점 더 심해져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된 백작은 그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바흐에게 밤에 들을 음악을 작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받아 작곡된 것이 바로 이 변주곡이다. 카이제를링크 백작은 이 곡에 몹시 흡족해서 ‘나의 변주곡’이라 불렀고 잠이 오지 않



곽규호 과장
포항성모병원 신경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5. 3. 21~1750. 7. 28)
독일작곡가



을 때마다 골드베르그를 불러서 ‘나의 변주곡’을 연주해달라고 하곤 했다. 백작은 이 곡에 대한 사례로 금잔에 금화를 바흐에게 가득 담아 사례하였으며 이는 바흐의 1년 월급을 웃도는 금액으로서 바흐가 평생 받았던 사례비 중 가장 많은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포르켈은 이 에피소드를 끝맺고 있다.

이 곡은 이러한 로맨틱한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이 이야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변주곡이 출판된 것은 1742년경이며 작곡시기는 174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는 골드베르그의 나이가 불과 13세의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과연 바흐가 13세의 소년이 연주하도록 이런 복잡한 곡을 작곡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게다가 1742년의 출판본에는 거액의 사례비를 주었다는 카이제를링크 백작에 대한 헌정사나 감사문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에피소드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은 더욱 깊어진다.

카이제를링크는 바흐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바흐가 궁정작곡가의 직함을 가지게 되는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바흐는 38세에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합창장)로 부임하여 65세에 사망할 때까지 이 직위에 있었다. 이 자리는 여러 가지로 교회 당국과의 마찰이 심한 자리였으며 곧은 성미에 주변성이 없는 바흐로서는 시의원들이나 목사들과의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라이프찌

히의 통치자인 작센 선거후에게서 1736년 11월에 ‘폴란드왕 겸 작센 선거후 궁정작곡가’라는 직함을 수여받게 되어 시의 고위층 인사들과의 접촉시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카이제를링크 백작이었다. 바흐는 평소 그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은 새로 제작된 쳄발로의 성능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바흐가 자신이 작곡한 변주곡 전곡을 연주하였고 카이제를링크 백작은 그 곡을 매우 칭찬하였다고 한다. 이에 바흐는 이 곡이 출판되면 한 권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하였는데, 아마도 이 일화와 평소 두 사람의 친분을 바탕으로 하여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에피소드가 각색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최근의 이론이다.

구 성

이 변주곡은 장중하면서도 아름답고 명상적인 사라방드 스타일의 G장조 주제와 그에 이어지는 30곡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G장조 4분의 4박자의 주제곡은 1725년에 작곡된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에 실려있는 ‘사라방드’에서 취해진 것이다. (이 모음곡에는 영화 ‘접속’에 인용되어 유명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아름다움, 특히 주제곡인 아리아의 단순하면서도
 명상적인 선율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와 같은 편견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인간이 만들어낸 변주곡 중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작품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미뉴에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지는 30개의 변주곡 중에서 세 곡은 G단조이고 나머지는 모두 G장조이다.

각각의 변주곡은 32마디의 저음부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멜로디 라인이 저음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구사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변주의 주제는 아리아의 선율이 아니라 베이스 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각 변주의 멜로디나 곡의 형식은 더욱 다양한 형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바흐는 이 곡에서 사라방드, 푸가, 토카타, 트리오 소나타, 코랄, 아리아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곡들을 자유롭게 배열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 곡들이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세 곡 단위로 묶여져 있으며 각 묶음의 첫곡은 항상 카논(돌림노래형식의 일종) 형식인데, 이 각각의 카논들은 한 음정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다(3변주: 1도 카논, 6변주: 2도 카논, 9변주: 3도카논, ... 27변주: 9도 카논). 그리고, 마지막 제 30변주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민요 두 곡의 멜로디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 곡의 가사내용은 ‘나는 오랫동안 너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돌아오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다오’ 라는 내용이다. 이 마지막 변주가 끝나면 다시 처음과 동일한 아리아가 반복되는데, 이는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간청에 못이

겨 아리아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 재미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흐는 이와같은 음악의 구조 내에서의 수학적 질서를 매우 중요시 하였는데, 골드베르크 변주곡 뿐만 아니라 B단조 미사나 마태 수난곡 등의 대곡에서도 아주 정교한 수학적 규칙에 따라 음악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물론 이 곡은 갖가지 수수께끼와 많은 일화들을 간직하고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순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함과 다채로움, 그리고 무한한 생명력, 음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세계의 위대함, 이러한 것들이 이 곡에 숨어있는 진정 위대한 보물들이며 바흐 음악의 진면목이 이 한 곡에 집대성 되어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로에 지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한잔의 차와 함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무한한 아름다움에 푹 잠기는 것도 우리 영혼의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편집자 주] 2010년 8월, 2주간 넘게 아프리카의 케냐와 말라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온 정만진 의장에게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관한 원고를 요청하였다. 우리에게 생소한 아프리카와 의료봉사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3부로 나누어 연재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 제2부를 신는다.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의료봉사기 제 2부)



2010년 청년의사신문이 주최한
제4회 MD PHOTO 사진전 은상 수상작

제목 : Who are you?

2010년 8월 14일 아프리카 말라위(Malawi) 리롱궤(Lilongwe) 빈민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케냐 의료봉사를 마치고 말라위라는 나라의 수도 리롱궤(Lilongwe)의 빈민촌에 진료를 갔을 때, 3개월 된 아기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방인을 쳐다보는 아기의 눈과 입이 마치 "Who are you?"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 본인입니다.



정 만 진 의장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마사이 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건장한 전사들이다. 그들은 키가 크고 다리가 가늘지만 매우 잘 걷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랬다.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도착하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환영행사를 해주었고, 나는 추장과 “잠보”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였다.

마사이 언덕의 버스 전복사고

아프리카에서의 진료 3일째, 우리는 마치 야유회라도 가는 기분으로 57명이 한 팀이 되어 키 크고 용감하고 잘 걷기로 유명한 마사이족이 모여 사는 마사이 랜드(Masai land)에서 진료를 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숙소를 출발하였다. 그곳은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 숙소에서 나이로비 중심지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가야하므로 잘못하면 심한 교통정체에 걸리기 때문이었다. 우리 버스가 나이로비 시내를 관통하여 가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이로비 시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300만 명이 산다는 대도시 나이로비 중심가는 우리나라 대도시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수많은 자동차와 신호등 그리고 현란한 영상의 야외 광고판까지 있고, 30층은 넘어 보이는 고층빌딩도 보였다. 나이로비 시내를 벗어나자 TV의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그런 아프리카의 산야가 나타났다. 우리가 탄 버스는 여기저기 낡은 흔적이 역력하고 트럭을 개조하여 만든 60인승이었는데 57명의 봉사자와 약품과 장비를 싣고 있었다. 도로는 넓지만 가운데만 포장되어 있고, 포장된 곳과 비포장 길 사이에는 20cm 정도의 높낮이가 있어 차들이 서로 교행을 할 때 포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다 보니 아슬아슬하고 위험하였다. 그런데 이 버스가 목적지를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심한 기름타는 냄새가 나더니 그만 정지해버렸는데, 엔진이 오버히팅 되었다. 우리는 “여행이 너무 평범하면 재미가 없다. 이런 경험도 있어야지.”하며 전혀 불만 없이 기다렸다. 20여 분이 지난 후 다시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불현듯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의 묘지에 쓰인 글귀가 생각났다. 이제는 문제없이 잘 달려주기를 바랐으나 목적지를 2km 정도 앞두고 약간 기우뚱하며 평 하고 소리를 내더니 또 다시 서고 말았다. 이번에는 좌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진료를 할 올테페시(Oltepesi) 보건진료소가 눈에 보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 황량한 아프리카 광야에서 펑크가 났지만 이번에도 역시 별로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우리 걸어갑시다.”하고 제안을 하니 모두들 동의해 주었다. 마침 지나가는 작은 트럭이 있어 약품과 장비를 그 차에 싣고 우리 일행 50여 명은 마사이 랜드의 황량한 벌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마사이 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건장한 전사들이다. 그들은 키가 크고 다리가 가늘지만 매우 잘 걷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랬다.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도착하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환영행사를 해주었고, 나는 추장과 “잠보”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였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들이 열심히 마사이 사람들을 진료하였다. 70세의 한 마사이 노인인 복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돌덩이 같은(stony hard)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암이 진행된 것 같았다.

진료가 끝날 무렵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가 펑크를 수리하고 돌아왔다.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마사이 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정말 작은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메마른 땅에서 어렵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에게 볼펜을 나눠주고 한 아이에게는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더니 그 부모가 대단히 고마워하였다.

마사이 촌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였다. 버스를 타자 봉사단원들은 더위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몸을 뒤로 젖히고 휴식에 들어갔다. 케냐와 말라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운전석이 우리와 다르게 우측에 있었다. 나는 운전수 바로 뒤 쪽 옆 좌석에 자리를 잡았기에 앞쪽 전망을 잘 볼 수 있었고 또한 운전수의 행동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갈 때와는 달리 버스는 아무런 문제없이 30여 분을 잘 달렸다. 그리고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다. 오르막의 정상에 도달할 무렵 엔진의 힘이 부치게 되자 운전수가 기어를 2단에서 1단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끼릭 끼릭” 소리가 나면서 기어 변속이 되지 않았다. 나는 30년 가까운 운전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10여 년은 수

동변속 자동차를 몰았기에 기어변속의 기술과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 오토 차량과 달리 수동 변속 차량은 오르막에서 기어 변속을 신속하게 잘 해야 한다. 클러치(clutch)를 밟고 기어변속을 하고 거의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뒤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이 버스가 지금 기어변속이 되지 않았다. 기어변속이 되지 않으면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워야 한다. 30대 중반의 우리 버스 운전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뒤로 밀리자 이번에는 수동 브레이크(주차 브레이크)까지 힘껏 잡아당겼다. 그래도 차는 계속 뒤로 움직였다. 아마도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57명의 봉사자와 장비 그리고 버스자체의 무게까지 합해지니 한번 뒤로 밀리기 시작한 버스는 가속이 붙기 시작하였다. 가속이 붙는 순간 버스 문 옆에 있던 현지 봉사단의 한 젊은이가 재빨리 버스 문을 열고 뛰어 내렸는데,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 혼자 살려고 뛰어내리네.”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가속이 붙기 시작한 버스는 빠른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렸고, 버스 속에 있던 우리는 무엇인가를 꼭 잡으며 “어~어~”하는 탄성 밖에 할 것이 없었다. 가속도를 붙이며



1. 펑크난 버스
2. 잠보(안녕하세요)



지그재그로 200여 미터를 밀려가던 버스는 굉 소리를 내며 길옆 오른쪽으로 90도 뒤집히고 말았다. 순간 왼쪽 선반에 있던 물건과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난생 처음 버스전복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일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이 멍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정신이 들었다. “모두들 괜찮습니까?” 하며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는데 크게 피가 나거나 쓰러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걱정이 되어 우선 목을 이리저리 돌려본 후 다시 몸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천만다행으로 특별히 아프거나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리와 입속에 상처가 났고, 운동화가 찢어져 있었다. 나는 눕혀진 상태로 목을 돌려 위를, 아니 실제로는 좌측 창문 쪽을 쳐다보니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영화에서 보던 교통사고 장면이 떠오르고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리고 빨리 이 버스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열린 위쪽의 창문을 잡고 당겨보았더니 체중을 지탱할 만큼 단단하였다. 내 몸이 날씬하니 창문으로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의 발을 좀 밀어달라고 한 후 창문을 잡고 당기니 어렵지 않게 몸이 바깥으로 나왔다. 나는 지금 위쪽이지만 실제로는 버스의 좌측 창문 위에 있는 꼴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당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밀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쪽 창문에서도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당겨내고 있었는데, 100kg이 넘어 보이는 뚱뚱한 현지 여성 봉사자는 발버둥을 쳤지만 덩치 때문에 창문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차가 후진하기 시작할 때 뛰어내렸던 잭(Jack)이라는 현지 봉사자가 외부에서 뒤쪽의 큰 창문을 돌로 깨뜨려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으로 탈출하였다. 57명 중 20여 명은 조그만 창문으로 나머지는 깨뜨린 뒤쪽 창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좌측 창이었지만 지금은 위쪽이 된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타이어와 다른 차체 하부 부분을 밟고 겨우 땅에 내리는 순간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순간 항상 오른쪽 허리에 차고 다니던 나의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만져졌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아직 일부의 사람들은 버스 위에 있고 일부는 내려오고 있는 생생한 현장 사진 세 장을 찍을 수 있었다. 세 장의 사진을 찍고 나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구하고 돌보는데 동참하였다. 우리는 폭발의 위험을 생각하여 되도록 버스와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였다.

정신없이 버스로부터 사람들이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우선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천만다행으로 대부분의 봉사단원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세 사람이 좀 심한 부상을 당한 것 같았다. 그리고 버스는 디젤 기름을 쓰기에 폭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폭발의 위험을 벗어나 좀 안정이 되자 각자의 상태를 살펴보며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쇠파이프와 다리와 팔에 골절이 의심되는 세 사람은 응급처치를 한 후 지나가던 차량을 이용하여 나이로비 시내 병원으로 보냈다. 우리는 의료봉사단이 아닌가? 그러므로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충분한 약품과 붕대 등의 재료

도 있었다. 모두들 서로에게 상태를 묻고 위로하며 전복 사고에서 이 정도로 끝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옆으로 벌렁 누워버린 버스와 수십 명의 푸른 봉사단원 옷을 입은 외국 사람들이 도로 옆에 서성이고 있으니 지나가던 차들이 모두 정지하여 상황을 지켜보았고, 허허 벌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사이족 몇 명도 우리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현지 봉사자가 휴대전화가 터지는 언덕을 찾아 올라 봉사단 본부에 연락을 하였고, 운전기사도 현지 봉사자 휴대폰을 빌려 버스회사에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약품과 장비를 오르막 위로 옮겨서 길옆에 쌓아두고, 대체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같으

면 사고가 나자마자 구난차와 구급차와 경찰차가 달려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버스가 전복된 것이 오후 3시 20분경 이었는데 어두워 진 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 끝내 구급차는 물론 경찰차나 구난차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만일 여기에서 중상을 입었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아찔한 마음이 들었다. 아프리카에서 겁나는 것이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과 에이즈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통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버스가 올 때까지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의 의견을 물어가며 버스 전복 순간의 기억을 되돌려 보았다. 버스가 뒷걸음치기 시작하자 버스에서 뛰어내렸던 잭(Jack)에게 “의리 없이 너 혼자 살겠다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손을 내저으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종종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빨리 뛰어내려 뒷걸음치는 버스의 뒤 타이어에 큰 돌을 받쳐 버스를 세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다. 버스가 너무 빨리 후진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그 친구가 있었기에 밖에서 창문을 깨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으니 그는 희생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3. 전복사고가 난 오르막길

4. 전복된 버스, 사람 얼굴까지 나오는 더 리얼한 사진이 있으나 초상권문제로 신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못 느꼈던 타박상의 통증과 작은 찰과상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나도 목에 통증이 있었고, 입속이 좀 찢어져 있었으며 신고 있던 운동화 모서리가 찢겨져 있었다. 그래서 진료약품 박스에서 파스와 연고 등을 꺼내어 치료를 하였다. 가벼운 치료를 다 하고 나니 별로 할 일 없어 그냥 도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낙타 떼를 몰고 가는 마사이 족도 지나가고, 소 떼를 몰고 가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우리는 지루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방금 전의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

했는데도 크게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는 봉사를 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온 사람들이라서 마음이 넓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던 중 승용차형 작은 트럭이 한 대 오더니 우리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얼굴이 별로 검지도 않고 아프리카 사람치고는 품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내렸다. 별로 할 일도 없는 우리가 그 사람 주위로 가니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물었다. 현지 봉사자가 설명을 하고 의사인 나와 박선생이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저 멀리 한국에서 좋은 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을 당했을까?”하는 표정을 짓더니, 자기가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박선생이 “우리는 지금 마실 물이 필요하다. 당신이 차가 있으니 좀 사다주면 좋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겠다고 차를 몰고 떠났다. 그가 떠난 후 현지인에게 생수를 사려면 얼마나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적어도 20km 이상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멀리 가야 물을 살 수 있단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였다. 그 친구가 생수를 사가지고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출행량을 칠 것인지 반신반의 하였다. 그런데 거의 한 시간이나 지나서 그 사람이 생수 박스를 싣고 다시 나타났다. 나는 우선 생수 한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았더니 25km 정도를 가서 생수를 사왔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생수 값을 주려고 하니, 자기 나라를 도우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사고까지 났는데 어찌 돈을 받겠느냐며 돈 받기를 사양하였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게 25km를 왕복하며 자기 돈으로 50명이 넘는 생수를 사들고 다시 왔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갑에서 영어로 된 명함을 건네주며 꼭 메일을 보내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귀국한지 네 달이 넘는 지금까지 그로부터 메일이 오지 않았다. 마침 그때 내가 고맙다며 그를 포옹하는 사진에 그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다. 그 사진을 토대로 그의 선형을 나이로비 일간신문에 투고라도 하여 그를 찾아 감사를 표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우리가 봉사단 유니폼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 따라오는가 보다.

오후 3시 20분에 사고가 났는데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었는데 대체 버스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고,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칩을 사야 사용할 수 있는 현지 봉사자 휴대폰의 남은 금액도 거의 바닥이 나서 전화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때 문득 나의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앞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올 때까지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일몰 시간을 물어보니 내 생각과 같았다. 만일 대체버스가 제대로 온다면 모르지만 대체버스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이에나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현지인에게 여기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기다릴 곳이 없는지 물으니 25km 이상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생수를 사다 준 그 사람의 차로 여자들과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우리도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안전 한 곳으로 걸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의견을 의사들과 봉사단의 책임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처음에는 흠여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 걱정이 되는지 나의 의견대로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생수를 사다 준 그 사람의 차 뒤의 짐칸에 15명 정도 태워서 경찰검문소가 있는 안전지대로 보냈다. 그 차 주인과 몇몇 현지인은 약품을 비롯한 물품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서 기다리기로 하고 나머지 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마사이 랜드의 그 황량한 들판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찌 이 마사이 촌의 길을 걸어 볼 수 있었는가 하면서 신나게 걸었다. 나는 매일 걷기운동을 하는데 마침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좋게 걸어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행여 대체버스에까지 무슨 문제가 생겨 밤늦게까지 대체버스가 오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하는 최악의 생각까지 들었다. 걸어가던 중 봉사단 본부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출발한 승용차 한 대가 왔다. 그래서 좀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마사이 광야의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어둠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대체버스가 도착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흠여



5. 마사이 광야의 도로를 걷는 봉사자들

져 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버스에 탔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사고가 났던 그 언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긴 오르막길이 나타났다. 대체버스의 운전기사는 처음부터 1단 기어로 천천히 힘겹게 오르고 있었는데 때로 이름 모를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57명 봉사단의 마음속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또 다시 오르막 길에서 기어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후진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가득하였다. 솔직히 나도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만일 이런 길에서 이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모두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려서 걷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희미한 헤드라이트로 앞을 비추며 급경사길을 천천히 힘겹게 오르는 낡은 버스의 실내에는 불안과 공포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버스 앞쪽에 앉아 있던 내가 긴장감을 완화시켜 보겠다는 심정으로 일어서서 뒤를 보고 크게 한 마디 하였다. “포탄은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다시 이전처럼 버스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서 후진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였다. 그러자 광주에서 온 박 선생이 일어나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서, “새 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땡기가...”로 시작하는 “그네”와 또 다른 노래 한 곡을 불렀다. 불안을 이기려는 듯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박 선생

이 나에게도 노래를 한 곡 하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오르막길에서의 불안감을 없애보겠다는 박 선생의 심정을 잘 아는 터라 나는 기침을 한번 하고 망설임 없이 노래를 불렀다, 마치 울면서 빵을 먹는 심정으로.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하며 박수를 치며 마이크도 반주도 없이 “꿈꾸는 백마강”을 불렀다. 왜 하필이면 “꿈꾸는 백마강”이었을까?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히 버스 안을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동안 버스는 고갯길을 무사히 올라왔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갯길을 지나서 한참이나 오니 미리 안전지대와 있던 여자 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태우고 대체버스는 우리의 숙소를 향하여 달려갔다. 위험지역을 벗어나자 단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젊은 단원들은 오늘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끼리 인터넷 카페라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사고 이후 우리 일행은 정말 전우라도 된 것 같이 가까워졌다. 아직까지 카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만일 만든다면 ‘아죽살’로 하면 될 것 같다. ‘아프리카에서 죽다가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말이다. 숙소에 도착하니 오후 10시가 넘었다. 잘못 되었으면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불귀의 객이 될 뻔한 하루였다.

(jmj317755@hanmail.net)

- 다음호에 계속 -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

퇴행성 관절염으로는 슬관절이 제일 많이 침범하며, 특히 동양인들은 대부분이 여자들에서 유병된다. 슬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대부분은 슬관절 내측에 호발한다.



요즈음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성 질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형외과적 영역에서는 노인성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과 퇴행성 관절염이 그 대표적 예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는 슬관절이 제일 많이 침범하며, 특히 동양인들은 대부분이 (90%이상) 여자들에서 유병된다. 슬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대부분은 특히 슬관절 내측에 호발한다.

동양인들의 슬관절이 약간 내반 변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내측으로 편향되어 발생되기 시작하고 균형이 무너지면 급격히 내측으로 진행된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로는 우선 투약에 의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물리치료, TPI(압통점 주사요법), Prolotherapy(증식요법), 관절 내 연골주사 등을 시행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보존적 요법에 좋아지지 않고 결국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

수술적 요법으로는 나이가 50세 이전에는 연골 재생을 시도해 보는 미세골절수술, 자가 골연골 이식술,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등이 있으나, 연골의 부분적 손상 또는 결손에 사용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부위가 슬관절의 내측에만 국한되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외반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관절면이 모두 침범했을 때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



안길영 과장
포항성모병원 정형외과

특히 최근 비교적 많이 시행되는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장점으로는 성공률이 높고 조기 합병증이 적으며 기능이 많이 보존된다. 수술 수기의 발달로 수술의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단축되며, 기능상 정상에 가까운 회복 등으로 결과가 좋아지면서 점차 수술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에서는 전치환술의 약 5%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적응증과 수술수기에 있어 실수에 대한 폭이 좁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1. 적응증

첫째, 퇴행성 관절염이 한쪽 관절부분에만 국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전방십자인대가 잘 보존되어 있어야하고, 셋째, 내반 변형이 심하지 않고(15° 미만) 굴곡 구축이 심하지 않아야(20° 미만)한다.

전통적으로 인공관절 반치환술(한구획 치환술)은 좀 마르고 활동이 많지 않은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 군을 둘로 나누어 젊은 환자에서도 적응을 넓혀가고 있다. 첫째로 젊으면서 뚱뚱하지 않은 환자로 두 번의 인공 관절술을 예상하고 그 첫 번째 수술로 시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80세 이상으로 잔여 생존율이 10년 미만의 환자로서 수술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이환율이 적은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환자에서 시행한다.

2. 예 후

1970~1980년대 초기에는 한구획 치환술의 예후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환자 선택의 잘못, 치환물의 문제점 및 수술 수기의 미숙 등으로 말미암았다.

최근 적절한 환자의 선택, 수술적 계획 및 수술 술기의 개발로 인해 2차 수술을 받기까지(즉,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바꾸기 까지) 관절 치환물의 10년 생존율이 83% 내지 98% 까지 보고 되고 있다.

이상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중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중에서 특히 내측으로 많이 이환된 환자들에서 한정적으로 적절한 적응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기능 및 예후가 양호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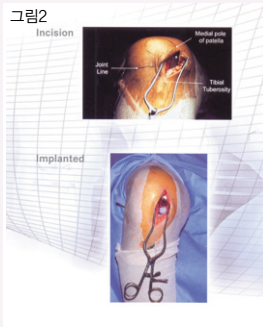


그림2

그림1) 치환물이 대퇴부, 경골부, 폴리에틸렌 삽입물 3개의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2) 피부절개 및 치환물 삽입 후 사진으로 최소침습 수술이 가능하다.

그림3-1, 3-2) 수술후 전후, 측면 방사선 사진

그림4)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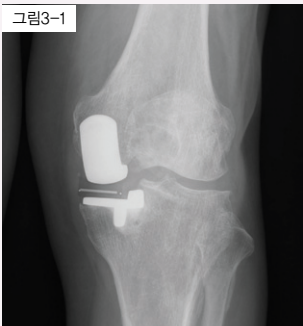


그림3-1



그림3-2



그림4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0년 10~12월)



포항시

이 일 섭 _ 재단법인제마재단 믿음의원
(791-841) 포항시 북구 죽도동 66-8
T. (054)282-7502 / F. 282-7503

시티요양병원

(791-819) 포항시 북구 죽도동 40-9
T. (054)231-7533 / F. 231-7538

미즈앤맘여성병원

(791-852)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6-1
T. (054)250-3500 / F. 277-7925

안동시

박 무 식 _ 박무식성형외과의원
(760-120) 안동시 목성동 65-8 3층
T. (054)843-2877 / F. 843-2807

경산시

김 석 희 _ 푸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712-110) 경산시 정평동 138-1 김스메디빌6층
T. (053)801-8575 / F. 801-8576

박 성 현 _ 옥곡이비인후과의원
(712-080) 경산시 옥곡동 823-14 2층
T. (053)816-3800 / F. 816-3803

권진경 _ 헤민내과의원

(712-804) 경산시 중방동 538-3 3층
T. (053)817-2455 / F. 817-2450

군위군

숙원의료재단 군위병원

(716-804)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11-2
T. (054)383-3531 / F. 383-3534

예천군

유인호 _ 안심의원

(757-833)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316-7
T. (053)654-2252 / F. 655-2258

의사회 회원 갤럭시S 특가제안

의사회 회원 및 병·의원 직원을 위한 갤럭시 S 특가제안(최저가)



▶ 갤럭시 S 올인원 55 요금제 가입시 공짜! 시중가 대비 20만원 Down

- 금번 행사는 경상북도 의사회와 SK텔레콤 협약에 의한 행사이며, 행사가격은 의사회 회원들에게 복지차원으로 추가로 할인된 금액입니다.
- 상세내용은 경상북도 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바랍니다(<http://www.igbma.or.kr>)

▶ 가입대상 :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 및 회원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

▶ 가입방법 : 경상북도 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 "갤럭시 S 특가행사" 배너(팝업창) 클릭 후 가입신청 또는 고객센터 전화

▶ 접수기한 : 2011년 1월 31일

▶ 구비서류 : 의사회 회원 - 의사면허증 / 직원 - 재직증명서

▶ 고객센터 : 053)420-6981~2, 010-4784-8585, E-mail : lsk97041@naver.com

KTX 신경주역, 김천(구미)역 위치도



KTX시간표 (서울 ⇄ 부산)

2010. 12. 15 현재

■ 경부선 상행

열차번호	부산	신경주	동대구	김천(구미)	서울	비 고
332					07:24	
258	04:45	05:24(밀양)	05:57		07:45	월, KTX-산천
202	04:50	05:18	05:37		07:29	월
102	05:00		05:47	06:11	07:39	
204	05:20		06:08		07:53	월
104	05:30	05:58	06:17		08:06	월 화수목금
334					08:25	
106	06:00		06:47	07:11	08:39	
302	06:20	06:58(밀양)	07:31		09:15	
108	06:30	06:58	07:17		09:06	
110	07:00		07:47		09:35	
352			08:00	08:24	09:44	KTX-산천
304	07:20	07:58(밀양)	08:31		10:15	
112	07:30	07:58	08:17		10:01	
114	08:00		08:47	09:11	10:48	
354			09:00		10:49	KTX-산천
116	08:30	08:58	09:17		11:01	
222	08:50	09:18	09:37			토일, KTX-산천
118	09:00		09:47	10:11	11:36	
306	09:10	09:48(밀양)	10:21	10:45	12:10	
120	09:30		10:10		11:48	
122	09:40	10:13	10:33		12:19	
124	10:00		10:47		12:31	
602	10:10	10:38	10:57		13:30	
356			11:10		12:54	KTX-산천
126	10:30	11:03	11:22		13:09	
224	10:45		11:32			금토일, KTX-산천
128	11:00		11:47	12:11	13:36	
130	12:00		12:46		14:35	
308	12:10	12:48(밀양)	13:21	13:45	15:09	
132	12:30	12:58	13:17		15:05	
604	12:45	13:13	13:32			
274			13:39		15:24	금토일, KTX-산천
134	13:00		13:47		15:30	
206	13:10	13:38	13:57		15:41	금토일
136	13:30		14:10		15:52	
358			14:30	14:54	16:19	KTX-산천
252	13:45	14:24(밀양)	14:57	15:22	16:48	금토일
002	13:50				15:58	KTX-산천
138	14:00		14:47		16:31	
140	14:30	14:58	15:17	15:41	17:09	
310	14:45	15:23(밀양)	15:56		17:40	
208	14:50	15:18	15:37		17:16	
142	15:00		15:47		17:35	
226	15:20		16:07			금토일, KTX-산천
144	15:30	15:58	16:17	16:41	18:01	
146	15:50		16:30		18:08	
360			16:42	18:29		KTX-산천
254	15:50	16:28(밀양)	17:01		18:45	금토일
148	16:00		16:47	17:11	18:36	
312	16:20	16:58(밀양)	17:31	17:55	19:20	
150	16:30	16:58	17:17		19:05	
210	16:40		17:27		19:11	토일
212	18:10	18:38	18:57		20:41	토일
152	17:00		17:47		19:37	
276			18:00	18:24	19:44	금토일, KTX-산천
154	17:30	17:58	18:17		20:04	
362			18:31		20:19	KTX-산천
606	17:50	18:23	18:42			
256	17:55	18:33(밀양)	19:06		20:57	금토일
156	18:00		18:47	19:11	20:36	
314	18:20	18:58(밀양)	19:31		21:19	
158	18:30	18:58	19:17		21:06	
228	18:50	19:24	19:43			금토일, KTX-산천
160	19:00		19:47	20:11	21:47	
316	19:15	19:54(밀양)	20:27		22:12	
214	19:20		20:08		21:59	토
162	19:30	19:58	20:17		22:15	
216	19:50	20:18	20:37		22:16	금토일
164	20:00		20:47	21:11	22:45	
280			21:00		22:44	금토일, KTX-산천
608	20:20		21:08		23:39	
166	20:30	20:58	21:17		23:01	
364			21:29		23:13	KTX-산천
218	20:50	21:18	21:37		23:21	금토일
318	20:55	21:33(밀양)	22:06		23:54	
168	21:00		21:47		23:31	
170	21:30	21:58	22:17	22:41	00:06	
172	22:00		22:47		00:31	
174	22:30		23:17	23:41	01:09	
220	23:00		23:40		01:18	토일

■ 경부선 하행

열차번호	서울	김천(구미)	동대구	신경주	부산	비 고
101	05:30		07:19	07:37	08:09	
251	05:45		07:31	08:03(밀양)	08:41	월
103	06:00	07:29	07:55		08:39	월 화수목금
105	06:30	07:54	08:20	08:38	09:05	
351	06:35		08:28			KTX-산천
107	07:00	08:25	08:51		09:37	
109	07:10		09:05	09:23	09:49	월 화수목금
111	07:30		09:15		10:01	
301	07:40	09:04	09:30	10:02(밀양)	10:39	
221			09:35		10:14	금토일, KTX-산천
113	08:00		09:51	10:09	10:37	
601	08:20	10:31	10:55	11:13	11:42	
115	08:30	09:55	10:21		11:07	
353	08:40		10:24			KTX-산천
117	08:50		10:36		11:15	
119	09:00		10:47	11:04	11:37	
273	09:10		10:59			금토일, KTX-산천
121	09:30		11:10		11:48	
001	09:45				11:53	KTX-산천
201	09:50		11:30	11:48	12:15	토일
303	09:55		11:43	12:15(밀양)	12:52	
123	10:00		11:51		12:37	
253	10:10	11:36	11:59	12:31(밀양)	13:09	금토일
125	10:30		12:17	12:34	13:01	
355	10:40	12:05	12:29			KTX-산천
203	10:50		12:36		13:15	토일
127	11:00		12:51		13:37	
129	12:00	13:26	13:50		14:36	
223			13:59	14:17	14:44	금토일, KTX-산천
131	12:30		14:16	14:33	15:01	
305	12:40	14:04	14:30	15:02(밀양)	15:39	
205	12:55		14:35		15:21	토일
603			12:43		13:28	
133	13:00		14:45		15:31	
275	13:10	14:35	14:59			금토일, KTX-산천
225			15:07		15:51	금토일, KTX-산천
135	13:30		15:21	15:37	16:05	
357	13:40		15:29			KTX-산천
207	13:55		15:36	15:54	16:21	토일
137	14:00	15:25	15:50		16:36	
255	14:10		16:00	16:32(밀양)	17:10	금토일
139	14:30		16:16	16:34	17:00	
307	14:40		16:26	16:58(밀양)	17:35	
209	14:55		16:36	16:54	17:21	금토일
141	15:00		16:50		17:36	
143	15:30		17:16	17:33	18:00	
309	15:40	17:04	17:30	18:02(밀양)	18:39	
211	15:55		17:42		18:21	토일
145	16:00		17:50		18:36	
279	16:10		17:58			금토일, KTX-산천
213	16:20		18:07		18:53	토일
147	16:30	17:55	18:20	18:38	19:06	
359	16:40		18:24			KTX-산천
149	17:00	18:30	18:54		19:39	
311	17:20		19:13	19:45(밀양)	20:22	
151	17:30		19:20	19:38	20:05	
215	17:50		19:30		20:16	금토일
605			19:37	19:55	20:22	
153	18:00	19:25	19:51		20:37	
257	18:10	19:36	19:59	20:31(밀양)	21:09	금토일
227			20:11		20:56	금토일, KTX-산천
155	18:30		20:16	20:34	21:01	
313	18:40		20:26	20:58(밀양)	21:35	
157	18:50		20:41		21:27	
159	19:00	20:25	20:52		21:31	
607	19:03		21:27		22:12	
361	19:10		20:59			KTX-산천
161	19:30		21:16	21:34	22:07	
217	19:50		21:36	21:53	22:20	금토일
163	20:00	21:26	21:51		22:37	
315	20:20		22:06	22:38(밀양)	23:15	
165	20:30		22:10		22:48	
363	20:50	22:15	22:39			KTX-산천
167	21:00		22:49	23:07	23:39	
169	21:30		23:20	23:38	00:05	
317	21:50	23:15	23:41	00:13(밀양)	00:50	
171	22:00		23:50	00:07	00:39	
331	22:40					
173	23:00		00:45		01:30	
333	23:30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리마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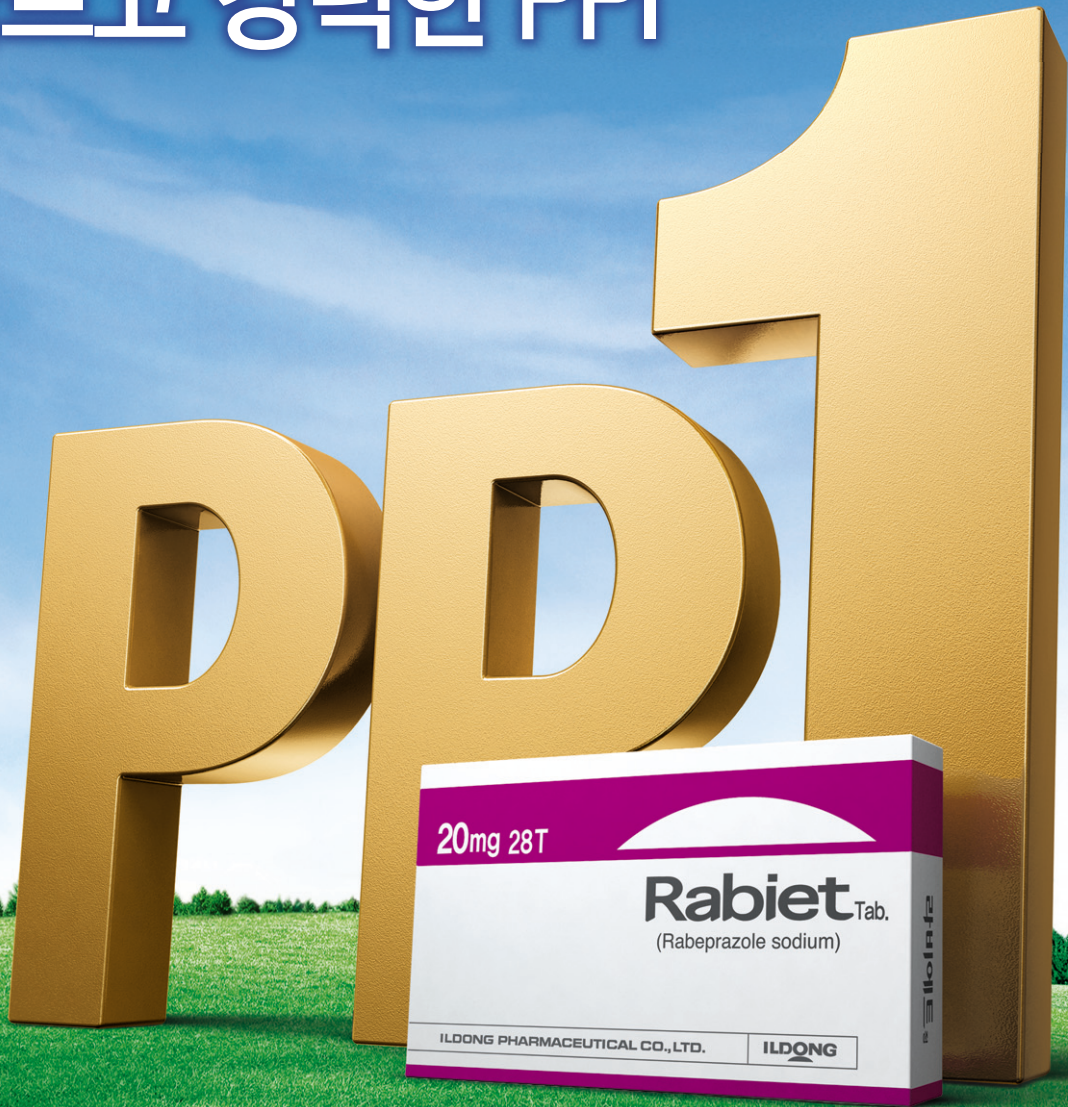


우수한 효과는 물론, Limaprost 제제의 안정성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하지통증, 하지저림 등의 증상개선에 효과적이었습니다.¹
- 보행거리를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¹
- 6개월 이상 장기투여시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 기존 Limaprost 제제에 비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²

Freedom of Walking
LIMADIN®
(리마프로스트알파텍스)

일동의 특허기술로 자체 합성한 빠르고 강력한 PPI



타 PPI보다 빠르게 위산분비 억제, 뛰어난 위점막 보호작용!
항생제와 병용시 강력한 H.pylori 제균율!
강력하고 지속적인 산분비 억제로 GERD 치료효과가 우수!

Fast & Strong PPI
라비에트 정

RABEPRAZOLE 10mg, 20mg